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겸 간행물 지재운
편집장 문정환
외대신문사(☎직962-7128 교965-7001)
외대학보(☎직965-7048 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517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5월 23일 (화요일)

'5·18총궐기' 시민과 함께 평화적 진행

서울, 20일 학생 4백 50여명 망월동묘역참배
용인, 18일 성남시청앞에서 2천 여명시위

서울·용인 양캠퍼스 학생들은 「광주항쟁계승주간」(서울:15일~23일 용인:15일~19일)동안 연일 과총회와 집회, 평화시위를 벌이고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 지난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과·단대별 총회등이 진행된 후 학생 7백여명은 18일(목)오후2시 연수원앞 해방광장에서 「5·18 광주항쟁계승과 고문학살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애국외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측에 「고문학살 진상규명」과 「공안합수부 해체」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광주항우회의 「5·18광주영령 추모 위령제」후 총학생회장 정계원군(동양·일어4)은 대국민 5월 총궐기투쟁선포문을 통해 「노정권의 5공부활음모를 저지시키는 것이 이철규열사사건의 재발을 막는길」이라며 「80년 광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5·6월 국민대항쟁으로 노태우정권을 타도하자」고 말했다. 이후 1천2백여명으로 불어난 학생들은 청량리역 광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 일정이 지난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4백5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광주에 도착한 학생들은 당일 전남도청앞에서 9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5·18광주항쟁계승및 학살원흉처단, 이철규군 살인규명 시민2차궐기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용인 총학생회는 지난 15일(월), 17일(수), 18일(목) 「광주항쟁계승및 학살자노태우처단을 위한 구국항쟁 결의대회」를 3차에 걸쳐 개최, 교내와 성남동지에서 평화시위를 벌였으며 김현채씨(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 사무처장)초청강연회와 「광주문화의 밤」등 문화행사, 모의「국회광주청문회」등을 열기도했다.

18일 오후3시 해방광장에서 개최된 제3차궐의대회에서 총학생회장 윤원철군(사회·경제3)은 「성남시민 학생 결의대회」출정사를 통해 「애국민주세력이 박종철열사의 죽음을 87년 6월항쟁으로 계승했듯 이철규열사의 죽음을 제2의 5월항쟁으로 계승시키자」고 주장했다.

집회후 학생 2백여명은 오후 5시경 성남 성호시장앞에 집결, 용성총원소속학생 3백여명과 합세해 약식집회를 연후 신구대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고 오후8시 재차 성남시청앞에 집결해 2천여명의 시민과 함께 「5공부활저지및 고문정권 학살정권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성남시민·학생결의대회」와 평화시위에 참가했다.

「학술세미나」 열려
27일, 신방과 주최로

신방과는 한국사회언론연구회와 공동주최로 「사회변혁과 언론에 관한 제7차학술세미나」를 오는 5월27일(토) 오전 10시 대학원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언론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해 각대학 신방과 및 신문사와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이세미나는 지난해 말 중앙대와 서울대에 이어 이번에 본교에서 열리게된 것이다.

「어학연수원」개설
6월3일까지 연수생모집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학생들의 어학능력향상 방학동안의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7월3일(월)부터 8월5일(토)까지 기숙사에 「어학연수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연수생모집 원서를 배부중이다.

2학기 수강신청 6월 3일 (토)까지
여름학기「수강조사서」도배부

89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5월31일(수)부터 6월3일(토)까지 서울·용인캠퍼스 해당화과정실에서 실시된다.

학년별 수강신청일은 1학년이 31일(수), 2학년이 6월1일(목), 3학년 2일(금), 4학년 3일(토)이며 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카드배부는 해당교학과와 학과장실에서 한다.

수강신청에 관해 교무과관계자는 「매학기 1차 수강신청기간의 신청들이 60%에 지나지 않아 과밀수업, 폐강과 같은 현상이 발생돼왔다」며 가능한 1차기간에 수강신청 마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89학년도 여름학기 수강희망조사서가 과목당 수강생의 과소현상을 막기 위해 이번 수강신청기간에 각단과대 교학과를 통해 배부·접수된다.

「제10회 왕산대동풀이」 개막
모의 평양축전형식으로 26일까지

「제10회 왕산 대동풀이-반미 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한 모의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어제(22일) 오후3시 개회식과 함께 시작돼 오는 26일(금)까지 체육, 문화, 학술, 정치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과대항 체육대회와 20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체극등 예년에 비해 참가하는 학생수가 많은 이번 대동풀이에 대해 총학생회 기획부장 김택환군(서문·노어4)은 「이번 대동풀이는 기존의 소비·향락적 축제에서 탈피하고 건전한 대학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반제·평화·친선을 표방하는 모의 평양축전 형식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히면서 학술·장치프로그램의 비중이 큼을 강조했다.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23일, 반제연대의 날〉 강희남목사 초청강연회(오후2시, 야외무대) 통일문제 알아 맞추기(오후3시, 야외무대) 탁아소 어린이와 함께(오후3시, 학생회관앞) 집체극-아!통일의 땅에 가리라(오후6시, 야외무대)

〈24일, 친선의 날〉 반제 재판소(오후1시, 야외무대) 박범신 초청강연회 및 작가와의 대화(오후2시30분, 교양학관 301호) 교직원·학생친선의 시간(오후3시, 운동장) 과그림 깃발 만들기(오후3시, 야외무대)

〈25일, 평화의 날〉 북한 영화제(오전10시, 학생회관 휴게실) 반전·반핵 평화 심포지엄(오후1시, 교양학관 201호) 세계민속문화 예술제(오후3시, 대강당)

〈26일, 반미 자주와 통일의 그날〉 제전 3·4위전 및 결승전(오후1시, 운동장) 왕산통일장사 선발대회(오후3시, 씨름장) 애국외대 대동놀이(오후4시, 대운동장) 통일노래한마당(오후5시30분, 대운동장) 폐회식 및 시상식, 축전의밤(오후7시, 대운동장)

「전국 국문학 연구발표대회」
오는 26·27일 소강당에서 개최

전국 국어국문학회 주최, 사범대 한교과 후원 「제32회 전국 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가 전국 대학교수 26명을 비롯한 각 단체 학생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양일간 대학원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대회에는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 「국문학 연구와 전통이론의 현대화및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이란 공동주제 아래 「국문학 분야」와 「국어학 분야」로 나뉘, 서울대 심재기교수(북한 국어학에 관한 문법), 충북대 이민홍교수(16·7세기 사림파 단가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외물인식과 형상사유)등 교수 14명의 연구논문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본교 이정임교수(교양학부)의 「기문에 나타난 사회적 자아의 양상」을 비롯해 건국대 김일근 교수의 「열녀 함양박씨전의 심층고찰」등 11편의 개인논문발표가 진행되며, 개막일인 26일 오후 4시에는 제38차 정기총회도 갖이 열린다.

용인 아랍어과
입원학우 수술 비 모금

동양어문대 아랍어과 학생회는 뇌농양으로 강남성심병원에 입원중인 김기형군(동문·아랍어4)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월15일(월)부터 4일동안 모금운동을 벌였다.

행운상자

▲용인대동풀이-모의청학축전 개최
-평양행 예비연습

▲전국「5·18추모 집회」열려
-「노××추모(?)집회」로 계승돼야

▲소련서기장, 중국방문중 미군철수 주장
-북방열기에 병어리 냉가슴 앓는자 있어

「개발」과 한 농민의 「죽음」

▲토지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원천이자 안식처이다.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북부인의 논리로는 한낱 상품에 지나지 않겠지만 농민에게는 생활을 꾸려나가는 생존의 바탕이된다. 허나 삶과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터전이자 권리인 토지가 이제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참히 짓밟혀가고 가진자의 배를 부르게 하는 투기의 승부처로서 오염되고 있다.

없는자가 자신의 생의 터전으로부터 쫓겨 나가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급기야 죽음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국인 것이다.

▲지난 19일(금) 일산·분당 「새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은행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마련한 생활근거를 일거에 잃게된 한농민의 자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솟은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고 중산층의내집 마련을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자행된 정부의 정책에 의해 피땀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것을 비관,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진자의 투기가 부른 아파트 값을 없는자의 터전으로 상쇄시키려는 정부의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의 결과라고 밖에는 볼수 없다. 또한, 이렇게 가진자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정부정책의 구조적 모순속에서 빚어진 일이라 더욱 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상위 5퍼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전국평균 65.2퍼센트 즉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어말대로라면 70퍼센트 가량의 가구가 단 한평의 땅도 갖고 있지 못하고 소수 몇명만이 거의 모든 전국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단순한 통계만 보아도 정부의 토지정책의 허구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고대사회 이래로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 국가에서도 토지문제를 잘못 다루어서는 정권이 지탱될 수 없었다. 중세의 민란의 원인이 토지소유에 따른 과중한 조세에 있었으며 프랑스의 시민혁명도 봉건영주의 토지소유체계를 타파하고자 했던 데에 있었다.

우리 조상네들의 갑오농민혁명도 토지소유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단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농민의 죽음도 가진자의 이익을 옹호할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잘못등한 토지정책속에서, 배태되어진 필연일런지도 모른다.

더이상 정부는 가당찮은 논리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소외를 가속화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가난」이라는 설움에 더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없는자의 외침에 우리 모두가 귀기울일때 비로소 땅의 수난의 역사도 멎게 될 것이다.

〈강병준〉

동·서양 어문대, 동서양학대로
지난 16일「지역학 공청회」에서밝혀

동·서양어문대의 단대 명칭이 내년1학기 부터 「동·서양학 대학」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5월16일(화) 오후2시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교수·학생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학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혀진것으로, 학교측은 오는 6월중 단대명칭변경 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용인캠퍼스 교육개선위원회(이하 교개위)위원장 최창성교수(태국어과)는 지역학 도입에 대해 「아직 지역학 개념이 불분명하고 도입후 취업문제를 고려할때 교수와 학생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동·서양어문대 학제개편위원회(이하 학개위)가 요구한 지역학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FBS가요제」
예선30일, 본선 6월5일

서울캠퍼스 교육방송국은 본교생을 포함한 경인소재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외대가요제」를 오는 6월5일(월) 오후6시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참가곡자격은 새로이 창작된곡으로서 전통적정서를 고양시키고 대학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참가부문은 독창·중창에 관계없이 민중·전통·순수가요 3개분야이다.

시청각 교육원 내부시설 보완
노후녹음기교체 · 신교재비치등

서울캠퍼스 시청각교육원은 지난 5월17일(목)까지 사운드라이브러리과석 및 시청각교재의 확충을 비롯해 노후녹음기교체등 1차적으로 내부시설을 보완하였다.

사운드라이브러리의 보완·개선된 시설은 좌석12석확충, 노후녹음기48대의 신형교체, 대형에어콘설치, 포부루깡이 신교재제작, 시중의국어회화테일구입비치(총22종 4백40점), 아프리카어(3종). 불어(1종)교재, 노어비디오 테일(21편)입수등이다.

그 밖에 시청각실습실의 교수용마스타녹음기의 신형교체는 오는 5월말, 마인이 신교재제작은 내년 2월, 비디오들방영의화확충은 1학기말 까지 완료될 예정이지만,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좌석수는 전체학생에 비해 아직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외대학술상 논문을 모읍니다」

본보는 올해에도 「제7회 외대학술상」개최를 통해, 참된 지성과 곧은 의지로 이 사회 학술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 여러분의 연구와 노력이 담긴 학술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모자격:본교재학생
◇모집분야: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개부문(각 원고지 80매내외)
◇제출처:외대학보 학생기자실(서울 : 학생회관 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문의전화 : 965-7048)
◇심사위원및 상금:추후발표
마감일:7월22일(토)
※단,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수 강 생 모 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영어과(2개반)50명, 일본어과(2개반)50명
2. 교육일정
1)기 간:1989. 9. 4-1989. 11. 24(12주 교육)
2)교육시수:1일3시간(18:30-21:20)
3)주당일주:5일 (월요일-금요일)
3. 지원자격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망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4. 시험과목:지망학과 외국어 필기시험
5. 제출서류:소정원서 및 사진1매
6. 원서교부·접수:1989. 5. 17(수)-1989. 5. 31(수)
7. 전 형 료:5,000원
8. 전형일시:1989. 6. 3(토) 14:00 외국어연수원
9. 합격자발표:1989. 6. 9(금)14:00 외국어연수원
10. 수 강 료:162,000원 (월 54,000원 상당)일시납
11. 등록기간:1989. 6. 9(금)-1989. 6. 17(토)외대구내우체국
12. 기 타
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년 3회 실시함. 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에 따라 모집학과의 조정이 가능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연수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 (직통)962-7119, (교환)2174
1989년 5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1989학년도 후기

각대학원학생모집

대학원(직)962-7117 (교)965-7001 (구내 2104)

1. 모집학과
가. 석사학과장-영어과·불어과·독어과·노어과·서반아어과·일어과·이태리어과·중국어과·아랍어과·페르시아어과·힌디어과·국어학과·사학과·국제정치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법학과·행정학과·교육학과·사회학과·가정학과·의류학과·식품영양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지질학과·생물학과·통계학과·전자계산학과·
나. 박사학위과정-영어과·불어과·독어과·노어과·서반아어과·일어과·이태리어과·아랍어과·페르시아어과·힌디어과·국어학과·사학과·국제정치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법학과·행정학과·교육학과·사회학과·가정학과·의류학과·식품영양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지질학과·생물학과·통계학과·전자계산학과·
2. 시험과목-석사학위과정-(1) 전공과목 (2) 영어 (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 구술시험
박사학위과정-(1) 전공과목 (2) 영어 (3) 제2외국어 (4) 구술시험
3. 시험일시-(1) 전공과목 (2) 영어 (3) 제2외국어 (4) 구술시험
4. 시험일시-(1) 전공과목 (2) 영어 (3) 제2외국어 (4) 구술시험
5. 원서교부및접수-(1) 전공과목 (2) 영어 (3) 제2외국어 (4) 구술시험
*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자는 학부 각과의 조교로 채용돼 연구·보조업을 지원함.

무역대학원(야간)(직)962-7118 (교)965-7001 (구내 2109)

1. 모집인원-석사학위과정 각과 OO명 연구과정 OO명
2. 모집학과-(가) 경영학석사:부동산학과·무역경영학과·행정경영학과·경제학과·
3. 시험과목-(가) 석사과정:(1) 논문 (2) 외국어(1개어학명) (3) 면접
(나) 연구과정:(1) 서류심사 (2) 면접
4. 원서교부및접수-(1) 0000년 0월 00일(월)~0월00일(토)
5. 시험일시-(1) 0000년 0월 00일(월) 오후2시
* 비 상경계열 졸업자는 학부 각과의 조교로 채용돼 연구·보조업을 지원함.

교육대학원(야간)(직)963-6881 (교)965-7001 (구내 2116)

1. 모집과정-석사학위과정 OO명
2. 모집전공분야-국어교육·영어교육·불어교육·독어교육·서반아어교육·일어교육·한문교육·윤리교육·역사교육·
한국사학·과학행정·상업교육·체육교육·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1) 전공과목 (2) 영어 (3) 제2외국어 (4) 구술시험
4. 시험일시-(1) 0000년 0월 00일(월) 오후2시
(2) 0000년 0월 00일(월) 오후2시
(3) 0000년 0월 00일(월) 오후2시
(4) 0000년 0월 00일(월) 오후2시
5. 지원서교부및접수-0000년 0월 00일(월)~0월00일(토)
* 학력 과사는 수업료의 40%를 감면함. * 재학중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석사과정에 다닌자와 학원원을 마친으로 한는 분들 두대학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수 있음.
*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을 마친으로 한는 분들 두대학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수 있음.
●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바람.
● 위치=(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취경 전화번호(3자리수)

사설

「교원노조」와 문교부의 탄압조치
- 참교육 위한 「교원노조」설립을 왜곡말라

문교부는 지난 16일 문공·내무·노동·안기부·대검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교직원노조결성준비 핵심교사를 형사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1백여명에 대한 파면조치를 확정하였다. 이어 19일에는 파면대상자로 성명된 교사들 가운데 28일의 교원노조결성대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교원노조 관련활동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않겠다면서 전향(?)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일 모일간지 광고면에 게재된 문교부의 「교육가족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은 현하 문교부의 교원노조관과 더불어 「노동자 경시사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부 선생님들의 노동조합결성 움직임을 둘러싸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어…」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교원노조결성이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손상을 준다는 점, 그리고 공경의 대상인 스승이 자신을 「노동자」로 자처하여 스승상을 효린다는 점등을 들면서 구구절절이 「…진정 이나라 교육발전을 위해…」교원노조설립 교사들을 엄격히 처벌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의 노고를 제도교육의 틀속으로 쳐박으려고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묻고싶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굴절된 역사속에서 독재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제도교육으로 전락한지 오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속에서 문교부는 일선교사들을 향해 끊임없는 제도교육을 강요해왔는 바, 83년에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관련교사들을 대거 파면시키기도 하였었다. 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획일화된 교육속에서 출세욕과 자본주의적 경쟁심한을 상승시켜 공부벌레를 만들어온 이땅의 교육현실이 엄연한데 그 칠병역할을 스스럼없이 해 온 문교부가 오히려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민주교사들의 조합건설을 탄압하고, 스승상 운운하며 「노동자」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교육이 올바르지 않고는 나라가 성할 수 없고 식민지 조국에 자주국가건설은 있을 수 없다. 이에 참교육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수많은 민주교사들의 교원노조설립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들의 참교육실천의지를 막으려는 어떠한 공권력의 책동에도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음터오르는 교육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본

중국「학생시위」의 원인과 특징

신 봉 수
〈대학원 아주지역학과 석사과정 3학기〉

Ⅰ. 들어가는 말

중국의 반제·반봉건 운동의 효시였던 「5·4운동」 70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중국의 학생 시위는 지난 19일 강경진압에 반대했던 조자양의 실각설과 20일 베이징 일원에 내려진 계엄령등으로 그 한계점까지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시위는 근접한 국가이면서도 체제가 다른 중국사회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동시에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때 그들의 시위양상은 많은 궁금증을 보여주고 있다.

호요방의 갑작스런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 금번 중국학생시위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구하기는 용이치 않다. 물론 그것은 하문 연구의 기초적 조건이면서도 체제의 상이성에서 오는 자료의 미흡 문제로 설명될 수도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것은 실체에 대한 본질을 외면하고자 하는 기존 언론 매체의 보도 행위도 하나의 이유로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학생들의 시위는 그들의 시위의도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산출하여 왔다. 과거 중국학생 시위는 항상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후 숙청·역공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집권층의 권력 쟁탈전에 하나의 수단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등소평 체제 등장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학생시위 전통에 하나의 획을 긋게 되었다. 「죽의 장막」이라고 까지 칭하여 지던 중국의 폐쇄정책이 어떤이유에 의해서건 대외 개방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중국 학생들에게 그 자체가 충격이었으며, 중국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비판 능력은 자연스럽게 제고 되었다. 학생들의 자연스럽게 축적된 이러한 역량은 개방정책에서 나타난 역기능적 요인-인플레, 빈부격차, 관료의 부패등-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비판과 더불어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베이징 일원에 내려진 계엄령등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중국학생시위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때 많은 의문점을 던져 준다.

이러한 중국학생들의 변모와 개방화 이후 나타난 제 모순이 금번 중국학생 시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Ⅱ. 중국학생운동의 성격과 변모과정

중국 학생운동을 분석해 보면 그 성격이 개방화정책을 기점으로 반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개방화 이전의 학생운동은 조직적이며 의도적인데 반하여 개방화 이후의 학생운동은 그 성격이 주로 민주화, 자유화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1. 백화제방·백가쟁명 운동

백화제방·백가쟁명 운동은 1955년말 주은래의 「지식인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당중앙위 보고를 통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지식인의 열악한 조건을 시인하고 이러한 조건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이 운동의 본질을 당간부와 지식인을 상호 비판적인 위치에 대립시켜 놓음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 비판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택동의 의도를 좀더 심층 분석해보면 지식인들이 당간부들을 비판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가를 보여 주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간부들을 당의 인사들의 비판과 투쟁의 폭풍속에 단련시킴으로써 당의 영도력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백화제방·백가쟁명 운동은 단순한 자유화 운동이 아니라 모택동의 정치 스타일에 부합하는 당원의 정풍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문화혁명에서의 학생운동

중국의 역사에서 반전의 획을 그은 사건중의 하나가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이다. 문혁에서 학생의 영향력은 비록 그것이 모택동에 의해 의도된 역할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었다. 북경대학을 필두로 시작된 문혁 기간중의 학생 시위는 곧 대규모의 군중집회로 이어지면서 반정부 시위로 번지게 되었고, 부르조아 반동사상을 통렬히 비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시위의 전개는 모택동에게 있어서 그의 반대파인 유소기, 팽진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재탈취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탈권에 결정적 도움을 준 학생시위는 자체적으로 극좌적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모택동 자신도 학생시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모택동은 문혁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시위를 제지시켰으며, 「혁명경험의 교류를 위해 북경에의 운집을 지양하라」라는 지시로 학생들을 「하방운동」의 일선으로 투입시켰던 것이다.

3. 천안문 사건

천안문 사건은 1976년 4월5일 주은래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인 학생·군중들과 관헌·민병사이에 빚어진 유혈충돌이다. 이 사건은 문혁에 대한 비판과 그것으로부터의 이탈을 주장한 「주자파」와 문혁의 이상을 계속 추구하려는 「문혁파」사의의 갈등을 표출시킨 사건이다. 비록 이 사건으로 등소평이 재차 실각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후 화국봉이 등장하게 되며, 군부에 의한 세력다툼으로 문혁파가 정권에서 밀려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천안문 사건의 특징은 문혁의 오류에 깊은 불신과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과 일반민중의 자발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다.

4. 민주의 벽 운동

1978년 12월의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확대회의에서 등소평이 「해방사상」을 제시하였을때 그는 일종의 여론을 형성하여 종래의 극좌파들을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을 이용하여 일부 학생들은 북경에 「민주주의의 벽」을 설치하고 손갖 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의 내용중에는 서구적인 의회민주주의와 북수선거제도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 마르크스주의와 공산당통치를 거부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양상은 등소평으로 하여금 「건지4항기본원칙(堅持四項基本原則)」-사회주의노선견지, 무산계급 전정(독재)견지, 공산당 영도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견지-을 발표하게 하였으며, 당의 민주화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하였다. 즉 민주화는 모택동의 격하를 위한 도구로서 필요할 뿐이지 그 이상 신(新) 지도층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5. 86~87년 민주화운동

1986년 여름부터 중국의 개혁파들은 정책추진에 있어 보수파들의 기선을 잡기 위해 지식인들로 하여금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스럽게 토론하게 하였다. 이들 학생들로 대변되는 지식인들은 당시 추진하고 있던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진실로 성공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의 구조적인 개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학교내의 식당및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인민대표 선출방법을 개선하는 요구로 전환되었고, 마침내 학생들은 선거와 다당제 및 자유언론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는 시위와 폭력으로 격화되었으며, 등소평은 긴급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호요방에게 책임을 물어 사임케하였다.

Ⅲ. 89년도 학생운동의 특징

지난 4월15일 호요방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 중국의 학생운동은 여러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 특징중의 하나가 권력투쟁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번 운동을 개혁파의 입장에서 자파 권력의 공고화에 두기 위한 의도적인 묵인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호요방이 86~89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이후 제기된 인플레등의 개방화에 따른 역기능적 요인으로 개혁파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며, 또한 보수파들로부터 개혁파의 리더격인 조자양에 대한 거듭된 사퇴 요구에따라 현 개혁파의 위기의식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개혁파에서는 호요방의 죽음과 학생·지식인들의 불만을 연결시켜 보수파에 대한 역공을 감행하려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소위 경제개혁에 못미치는 정치개혁에서 찾을수 있다. 개방화 이후 중국의 학생·지식인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까지도 현 경제개혁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믿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곧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민주화란 두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추진하는 점서있는 민주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무차별적인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힘쓴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특유의 지방성과 인구의 부담때문에 그 개혁의 진척 정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산당 영도하의 개혁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지 못하자 학생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학생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중국이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즉 중국인민의 전반적 생활이 낙후 되었으니만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경제개발정책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와 중앙집권적인 통제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그동안 개방정책 이후 학생운동에서 강하게 제기된 부패한 관료체계의 개혁을 요구한 점이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학생이나 지식인 그리고 심지어 일반민중들 사이에서도 개방화의 역기능적 요인중의 최우선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에서의 관리의 부패란 단순히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불균형, 물가의 앙등, 위화감의 증대 등 전반적인 경제개혁에서 파생되는 모순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89년 학생 시위에서도 부패관리 추방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된 것이다.

Ⅳ. 맺는말

이상에서 중국학생운동의 성격과 변모과정, 금번 89년 학생운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앞으로의 중국학생운동과 그 영향에 대해 예상을 해 본다.

지난 79년과 86~87년의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도달하여 한계선을 넘어서는듯한 순간 중국공산당에서는 군투입에 의한 강경 진압책으로 일거에 그 사태를 수습하였다.

이러한 선례는 아마도 이번 89년 학생운동에서도 그 사태가 악화되어 당으로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게 될 때 다시 강경진압책으로 나서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진압책으로 사태는 진정이 되겠지만, 금번 시위에서 제기된 민주화에 대한 요구 수용문제와 개혁추진 방향을 둘러싼 지도부내의 논쟁이 향후 전개될 주요 현안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은 이전의 민주화운동후에 있었던 「인책론」에 대해 누가 그것에 책임을 질지 의문이며, 현재 중국내부의 상황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최고지도부내의 일

경제개혁 과정속의 모순이 학생시위 주원인

「정치개혁·민주화」 수행 여부가 이후 정치쟁점

중국 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주화」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정책 개선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이다.

미네르바대

▲「눈덮인 연병장, 구멍난 판초우의로 눈덩이를 나르고…, 어느새 벽난로 위엔 선임하사 몰래 라면이 끓고 있었다.」

군의 내무반 생활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고 해서 폭발적 인기를 모은 「동작그만」이라는 TV프로의 개시멘트이다. 상사의 말도 안되는 명령에 허둥대는 입병들의 모습, 신참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대우들은 개그맨들의 우스운 행동에서 몇조각의 웃음으로 변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기실 우리가 알아야할 군은 「동작그만」이 심어주는 낭만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지극히 비민주적일 뿐더러 나아가 군은 「식민지 용병」이라는 인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군의 사명은 「조국의 강토를 지키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군대가 40년전 이승만 친미사대정권에 반대했던 제주도민들을 몰살시키고, 80년 광주의 부모형제들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역사속에서 결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있다. 지난 역사속에서 행복적 복종과 분단이데올로기로 군계다저린 군은 이사회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표적 세력으로 존재해왔다.

▲외국군대의 지휘하에 같은 민족의 가슴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있는 사실이 단지 「남침의 위협」이라는 빛을 잃은 논리로 설명될수는 없다.

미국의 군사교육을 받고 충성을 맹세한 자가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되어 자리에 앉아 있고, 3천여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현실속에서, 입영전날밤 자살이라도 하려는듯이 소주를 퍼부어대는 친구의 모습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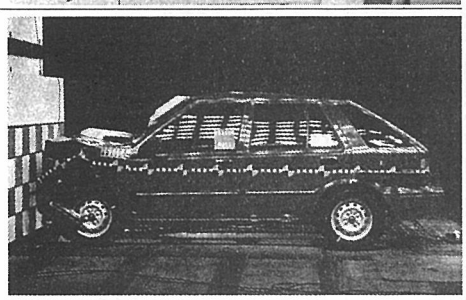
자랑스러워야할 입영의 길이 「용병」의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길로 변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미국의 대소전진기지, 무기판매를 위한 황금시장으로의 존재가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군」을 7천만 겨레의 안녕과 번영을 저켜줄 민족자주·민족통일군대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희황된 꿈만은 아닐 것이다. 아니 꿈이라면 이땅 젊은이 모두가 반드시 꾸어야할 꿈이다.

잃어버린 군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있을때, 그때서 언젠가부터 둥둘리고 서있던 군대가 바로 설수 있을때, 진정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자랑스럽게 입대할수 있을것이다.

(필)

우리 손, 우리기술로 세계제일의 자동차를 만든다 ③



"한번의 충돌테스트에 한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까운 차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사상을 최고의 철학으로

라일락 향기 짙게 드리우는 계절 -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듯이 저 또한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전연구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충돌사고시 어떻게하면 탑승자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안전공학은 이제 자동차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충돌테스트를 비롯 스티어링 임팩트, 지붕·강도 시험, 도어강도 시험, 범퍼시험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담당하는 이곳은, 현대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차를 부수어 가면서 일해야 하는 곳으로 불과 몇 mSec(1mSec는 1/1000초)동안에 일어나는 충돌사고로부터 탑승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간에 끝나버리는 충돌에 대해서, 주행중인 차의 차체가 어떤 물체에 부딪칠 때의 차체의 강도를 시험하는 차체강도측정팀, 충돌시 탑승자가 차의 내장품과 부딪쳐 입게 되는 상해를 줄이기 위해 모의충돌을 시도하는 대차충격측정팀과 부품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시계·의장팀,

그리고 실차충돌을 실시하여 탑승자 및 차체의 종합적인 안전도를 연구하는 실차충돌팀으로 세분화하여, 만약의 사태에서 탑승자와 차체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1mSec의 순간을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현대자동차

창업이래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포니」와 「스텔라」가 영국의 미이라(MIRA) 테스트와 미국의 칼스란(Calspan) 테스트에 합격하였고, 현재 「엑셀」, 「프레스토」는 물론 「쏘나타」까지 카나다와 유럽(EC)지역 안전규제기준을 비롯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는 미연방 안전규제기준(FMVSS)에 통과되어, 현대자동차를 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자동차 = 안전한 자동차」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저의 꿈이자 현대자동차의 기업이념인 우리는 우리기술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게 될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도 단한번의 충돌테스트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고철로 변하는 아까운 차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구부 안전연구과 박수정

HD 現代自動車

변혁전통의계승과 조직건설투쟁 ②

민 경 환
〈출판기획가〉

Ⅰ. 머리말

한국전쟁 이래 우리는 인일이 기억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공안사건」의 홍수 속에서 살아왔다. 이는 신식민지 테러독재의 상상을 초월한 폭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자생적이든 목적의식적이든 「목숨을 건」투쟁이 결코 중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특히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은 「건국이래 최대」, 「60년대 최대 규모」라는 사건 규모 자체의 방대함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 의의를 따진다면 항일무장 투쟁과정에서 확립된 변혁전통(그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의 원형을 오늘에 이어 주는 고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혁당은 한국전쟁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이 온전히 계승·창조되고 있는 북한과의 직접적 연관을 시도하고 그 전통을 인정한 최초의 남한 내 조직운동이었다. 또한 여타의 조직들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름만을 남긴 채 와해된 반면 통혁당의 경우에는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지지기반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 관점에 입각한 조직운동, 항일무장투쟁의 변혁 전통에 대한 인정과 계승의 자치, 현재까지의 지속성등은 통혁당에 관심을 갖는 충분한 까닭일 수 있다.

통혁당의 경우에는 몇가지 소개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베일에 가려진 상태였던 것이다.(통혁당 관련 소개서로는, 「통일혁명당」:(나라사랑, 1988)」과 「통혁당: (대동, 1989)」가 있다.

앞의 책은 공소장, 수사기록, 관련자들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하고 있으며 뒤의 책은 통혁당 일본대표부, 통혁당 중앙위원회에서 발간한 원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지하당」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활동 내용이 온폐될 수 밖에 없다는 사정과 그나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수사기록, 공소장, 수기,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통혁당의 주장과 선전물—로서는 전체상을 그려내기 어려우며 더구나 각각의 자료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필자는 이 글을 「평론가적 태도」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현재 밝혀질 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실과 의문점들을 제시하는 정도로 제한하고자 한다.

Ⅱ. 통일혁명당 결성 전후의 동향

(1) 북한의 동향

북한은 61년 4차 당대회를 통하여 남한에서의 독자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4·19라는 운동의 고양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노동자·농민이 항쟁에 광범위하게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 봉기는 분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했으나… 피의 댓가를 미제와 다른 주구들(민주당)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던 쓰라린 경험」(4차 당대회, 김일성의 총화보고 중에서)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것이다. 그 근저에는 남북한간의 혁명의 발전 정도와 민중의 주체적 지향이 이미 질적인 차이를 갖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하다. 즉,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이는 북한 사회의 억제할 수 없는 요구이다) 조선 혁명을 위한 민주기지로서 승리의 결정적 담보가 될 것이며, 남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행하며 광범위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노동자·농민의 독자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가 승리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유기적 결합이 전 조선혁명의 주요 역량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64년 2월의 4기 8차 전원회의와 65년 8월의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천명된 「3대 혁명역량강화론」으로 정식화된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북한은 대남사업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4차 당대회가 개최된 61년 1월 경에는 기존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던 각급의 대남사업 담당기구를 통합하여 노동당 연락국 체계를 수립하고 남한 정세분석을 위한 정보수집, 지하당 조직을 위한 공작시도, 남파 요원의 선발, 훈련 등을 그 임무로 하였다.

이 것은 3대 혁명역량 강화론이 천명된 64년에 이르러서 「노동당 대남사업총국」으로 변화한다. 이는 앞의 연락국 체계와 달리, 남한의 행정구역 편제에 따라 각 지역 담당 부서를 두어 업무를 세분화하고 124군부대, 283군 부대 등 유격부대와 695군 부대 등 6개의 직접지휘·통제할 수 있는 무장부대를 두고 있다.

이 체계는 「통혁당 사건」이후인 68년 11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폐지되고, 이후에는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 사업담당 비서를 두고 김일성이 직접지도·통제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북한은 대남사업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4차 당대회가 개최된 61년 1월 경에는 기존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던 각급의 대남사업 담당기구를 통합하여 노동당 연락국 체계를 수립하고 남한 정세분석을 위한 정보수집, 지하당 조직을 위한 공작시도, 남파 요원의 선발, 훈련 등을 그 임무로 하였다.

이 것은 3대 혁명역량 강화론이 천명된 64년에 이르러서 「노동당 대남사업총국」으로 변화한다. 이는 앞의 연락국 체계와 달리, 남한의 행정구역 편제에 따라 각 지역 담당 부서를 두어 업무를 세분화하고 124군부대, 283군 부대 등 유격부대와 695군 부대 등 6개의 직접지휘·통제할 수 있는 무장부대를 두고 있다.

이 체계는 「통혁당 사건」이후인 68년 11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폐지되고, 이후에는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 사업담당 비서를 두고 김일성이 직접지도·통제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노동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이 확인 될 뿐,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인혁당의 경우 한일협정체결을 전후로 고양하는 대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명백한 조작사건이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으로 부터의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수사기록, 공소장, 김질락 등 관계자들의 수기에 따르면 64년 3월 15일은 김종태가 일자도(전남창당준비위의 거점)를 거쳐 최초로 월북한 시기라는 것이며, 65년 4월 김종태의 2차 월북시 북한에 의해 김종태, 최영도, 정태묵간의 관계가 맺어졌고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본격적인 창당준비위가 만들어진 것은 65년 11월 초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에 의해서 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반제·반봉건의 민주사회를 거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 「보안부경」의 결과로 인한 「가상 알리바이」일 가능성도 높으나 전자의 경우도 표현상의 문제, 구성 인물등의 문제가 남는다.

어쨌거나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명확히 하면서 결성된 서울시 창당준비위는 김종태(위원장, 69. 7. 10. 사형), 김질락(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청맥」주간, 72. 7. 15. 사형), 이문규(조국해방전선 책임비서, 「학사주점」대표, 69. 11. 6. 사형)를 비롯한 지식인, 청년, 인텔리—특히 서울대 문리대·상대 출신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선조직 후공격」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임무를설정하고추진하였다.

①혁명의 대중적 기반의 축성:이를 위해 64년 8월 부터 67년 7월 까지 대중계몽지인 「청맥」 발간. 60년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었던 「학사주점」 운영. 청년문학가협회, 불교청년회, 동학회, 민족주의연구회, 경우회, 기독청년경제복지회, 청맥회 등의 대중써클 구성.

②당의 조직 강화:66년 초에 김질락, 이진영, 신영복을 중심으로 한 민족해방전선과 이문규, 이계락, 오병철을 중심으로 한 조국해방전선을 구축.

③각종 학술 연구써클의 조직과 당지도간부의 양성:64년 이후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레닌 전집」, 「스탈린 전집」, 「청춘의 노래」, (양팔(楊泰之 歌)), 국내에 「피어라 들꽃」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있음), 「제야의 종소리」 (고리끼의 소설 「어머니」의 위장 제목)등을 교재로 학습 진행. 「김일성 주의」를 학습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④기초 써클의 강화에 의한 당 세포조직의 개편:앞의 7개의 대중써클과 「학사주점」, 「청맥」의 권진 등을 통하여 받굴되는 인자들로 조직, 사건 발생 당시 9개의 소조가 있었다.

⑤민족통일전선구성을 위한 연합전선의 형성:66년 8월 경, 남조선해방전략당의 대표 권재혁과 김종태가 만나 혁명조직 대표자회의의 소집에 합의했다고 하나 그 결과는 미확인.

⑥이동문고의 설치와 이를 통한 사상교육:「학사주점」에 이동문고 도입.

⑦모든 조직을 장래 유격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술간부의 획득.

⑧각지에 무기고의 설정과 무기획득 및 그 비축을 위한 방법연구.

⑨특수 전술교관 요원의 양성.

⑩무력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이상의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와 관련하여, P·S작전(from paper to steel)입안·민족해방전선에서 이진영, 조국해방전선에서 오병현(오병철의 동생)월북 교육 시킴.

⑪「청맥」의 내용 보강:이를 위해 「청맥」의 기고자 들을 중심으로 「새문화연구회」를 조직, 그 산하에 6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

⑫합법활동과 비합법활동: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등 모든 형태에서의 활동 전개, 법정 투쟁의 전술 연구.

⑬당기관과 각 써클을 통한 6·8부정선거 반대 투쟁과 반미·반점부 투쟁의 전개:67년 6월 10일 6·8부정선거 규탄시위로 31개 대학, 136개 고교휴업, 힘프리·싸포 방한 시 규탄 유인물 살포 등.

⑭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일인 68년 9·9절에 북한으로 대표 파견.

(2) 60년대 초 남한의 운동상황

4·19와 5·16은 남한의 운동세력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비합법적 지하조직」의 필요성이었다. 4·19이후 통칭 「혁신계」로 분류되어 난립했던 수 많은 합법·반합법 공개 조직들이 5·16쿠데타로 순식간에 「거미알처럼 흩어져 버리며」변절하거나 좌절하는 상황에서, 이는 철의 규율을 갖는 고도의 정예 조직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이 지하혁명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직 건설의 시도는 「인혁당—남조선해방전략당—통혁당」의 흐름을 형성한다. 남조선 해방전략당은 구 남로당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의 전모를 다루고 있지 못함을 미리 밝힌다.

먼저 창당의 착수 시기와 경과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통혁당 측이 발간한 원자료들(통혁당 일본대표부, 「한국혁명의 전위:통일혁명당과 그 투쟁」 1981, 통혁당 내부 기관지 「혁명전선」)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64년 3월 15일 같은 날짜에 서울과 전남에서 동시에 구성되었으며 서울에서는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신영복이, 전남에서는 최영도, 정태묵 등이 주동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 근로민중의 전위조직』임을 천명하는 내용의 입시투쟁강령과 행동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64년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수사기록, 공소장, 김질락 등 관계자들의 수기에 따르면 64년 3월 15일은 김종태가 일자도(전남창당준비위의 거점)를 거쳐 최초로 월북한 시기라는 것이며, 65년 4월 김종태의 2차 월북시 북한에 의해

(2) 창당과 70년대:69. 8. 24~85. 8

앞의 사건이 발생한지 1년 후인 69년 8월 25일 「남조선 해방 민주민족연맹 방송」(70년 6월 1일 부터 「통혁당 목소리 방송」으로 개칭)을 통해 통혁당은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강령과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당의 지도이념이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계급적 기반에 대하여 「우리 당은 사회의 기간적 일꾼인 노동자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조선 혁명은 탁월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에 의해서 이끌어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에 찬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언은 또한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당면의 목적은 남조선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부패한 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뒤집어 엎고 그 무덤 위에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온 겨레의 소망인 민족제통일 대업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12개조의 강령으로 구체화 되는데 그 내용은.

1.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철폐와 자주적민주 정부의 수립 2. 파쇼독재체제의 일소와 사회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3. 민주적 토지 개혁의 실시와 농어촌의 빈곤 일소 4.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5. 민주적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개선 6. 여성의 권익보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 7. 민주적 민족문화의 창달과 지식인의 생활보장 8. 교육의 쇄신과 근로자 자녀에 대한 무료교육제, 장학금제도의 실시 9. 선진적인 의료보건제의 확립과 광범한 무상치료제의 실시 10. 자위적 민족 군대의 창설 11. 자주외교의 구현과 반제평화애호국과의 우호증진 1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성취 등이다.

통혁당은 당이 정식 창당되고 이상과 같은 선언과 강령이 확정된 것을 혁명 운동 사상 「일대 사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당 이후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첫째, 남한 각지에서 주체사상 연구회, 김일성주의 연구 써클이 광범위하게 결성되었고 (72년 5월 현재 남한 전역에서 2천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둘째, 남한 민중의 투쟁이 점차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70년대 초에 통혁당 관계자에게 북한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지령」에 따르면 통혁당의 문제점을 첫째, 지하당의 지도부가 없으며 각급 당지도부를 질적으로 꾸리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는 점, 둘째 노동운동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적 관점조차 희박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개괄적인 몇가지 사항만으로 전체상을 그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에 따른 개인적인 평가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더욱 심화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결론 보다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는 60년대와 70년대의 전반적인 대중운동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속에서 통혁당의 비중과 활동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혁당 사건 관련자들로 부터의 자세 평가·반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 필자 스스로 이글의 한계를 느끼며 전통에 대한 해석이 실증 연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 사상과 노선의 확립·관철 과정(비록 그 양적인 영향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실증적 연구는 그를 보족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글이 진전된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글을 맺는다.

글싣는 차례

1. 반일투쟁기의 대중조직사업
2. 해방이후 조직사업과 대중노선
3. 공안사건을 통해본 조직건설 사례연구
4.. 80년대 전국적 전위조직건설논의와 실체적규명

통일혁명당의 전위조직건설사업 연구

통혁당은 항일무장투쟁의 변혁전통계승위한 매개로 작용

애국세력 결집과 대중지도위한 전위당의 필요에서 조직돼

통혁당 창당이후 남한 민중투쟁의 목적의식적 조직화가 이루어져

변혁전통과 그것의 계승에 대한 어떠한 선입관적(당파적 아닌 종파적) 이해의 방식도 사상적 불순함과 조직적 패권주의를 근저에 깔고 있다. 변혁전통에 대한 무조건적 신비화와 「새로운 교조주의」 또한,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 냉소주의적 태도는 모두 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결손하게 계승하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중요한 전제이다. 이 때 통혁당에 대한 우리의 풍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반면 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남한변혁운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정보로 세계시장을
포석합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정보력은 종합상사의 血脈—
삼성물산은 전세계 58개 지역에서 700여명의
정보맨들이 세계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동경, 뉴욕, 런던, 홍콩 등 세계의 정보거점에서 수집된
日 6,000件 이상의 정보는 컴퓨터와 통신망이 결집된
SASCOMX라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편집, 가공됩니다.
그러나 수집된 고급정보는 결코 삼성물산만의 것은
아닙니다. 관계사, 협력회사, 거래선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공유합니다.
삼성의 촉각으로 수집된 세계의 정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혈관으로 우리 무역의 뿌리가 되어
세계 시장을 포석하고 있습니다.

三星物産株式會社

「데마고그」성 선전의 부활

김 광 동
〈서문·영어3〉

히틀러가 나찌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지대한 도움이 되어준 요소를 한가지 꼽는다면 「괴벨스」라는 인물의 공로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언론기관을 통제 이용화 하여 대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교묘한 선전가였고 그가 행한 자극적인 연설과 문장은 대중의 문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으며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동원 시킬수 있었다. 이런 자극적 악 선전을 「데마고그」성 선전이라고 한다.

이런 「데마고그」성 선전을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충격적인 발언일까?

지난 수 십년간을 통치해온 군부독재 세력은 그들의 비뚤어진 정통성에 「데마고그」성 선전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분단상황을 강조하며 위기의식을 고취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나름대로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언론을 꼽는다면 대학 신문일 것이다. 독재자의 마이크가 연일 떠들어대는 달콤한 선전에 반박하고 현실에 타협하기 보다는 곧게 선채로 죽음을 택하려 했던 양심의 행꼴은 독재자의 총칼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독재에 기반을 둔 당국은 이런 대학 신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난6일 정부 당국이 「좌경」「이적행위」운운하며 대학 언론탄압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현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데마고그」성 선전을 강행하여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대학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대학 신문은 이런 이론을 뒷받침하는 때제의 의무를 갖는다. 또한 대학이 수준 높은 민주 의식을 학습하는 도장 이라면 대학 신문은 민주 언론매체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현 제도권 교육하에서 성숙한 민주의식을 학습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향한 불길은 국경을 초월 할 수 있는것이며 레닌과 마르크스주의에도 물두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원리와 법칙을 탐구하고 사회를 분석하며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논할수 있는 대학 신문의 지면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관제 언론이 프로야구를 톱기사로 다룬다면 대학 신문은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의 모순을 냉정하게 파헤친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를 비판 할 수도 있고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세계와도 지면상에서는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문을 위한 신문, 민주 학습을 위한 신문을 당국이 탄압하는 것은 지적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말살하려는 의도와 다를게 없다. 지난 수십년간 일변해온 「데마고그」성 선전의 헛점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에서 당국도 이제는 자숙하는 자세로 좀더 겸허한 아량을 베풀수 있는 의식의 눈을 뜨기 바란다.

그리고 뒹전의 명언을 한번쯤 가슴깊이 새겨보길 바란다. 「잠시 모든 국민을 속일수 있고 언제까지 일부 국민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수는 없다」

자유언론·정론직필의 이름으로...

노 승 우
〈교양학부 교수〉

최근 잇단 시국사건으로 인해 정국이 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권력의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5월6일 교육을 관장하는 문교당국이 대학총학장회의를 소집하여 대학신문, 교지 등 대학언론의 편집, 제작, 판매권을 학생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하고 5월20일 이후에는 사물의 합법적 공간을 봉쇄하여 존립근거를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대학언론이 지니고 있는 운영체계와 논조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교수들조차 금번 이러한 비교육적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말해 공권력으로 학생과 교수를 격리하고 교육의 기능자체를 증발시키려는 것은 그나마 빈약하게 유지되어왔던 학생과 교수간의 신뢰관계조차 단절시키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대학과 시국을 보는 견해가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데 있다. 대학언론이 진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발상은 대학 고유의 속성과 현실에 유리될 뿐 아니라, 대학언론이 더욱 지하화·노골화되어 급진적인 방법으로 무장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대학 뿐아니라 대학신문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기능과 사회민주화의 추세속에서 사상의 지평을 확대해 왔다. 비록 대학언론의 논리와 문제의식이 좌편향적이거나 주관적이라고 판정하더라도 문제의 소재를 학교와 교수의 지도라는 문제 본연의 지위로 환원시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생은 성인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방치하거나 방치하도록 하는 구조를 제도화시키면 교육은 그때부터 실종하게 될 것이다.

대학신문의 기능은 아카데미즘과 지덕리즘 성격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언론은 대학인의 정치사회화의 큰 몫을 담당한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냉철한 분석으로 사회진보에 기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고유의 특성을 살려내는 성격을 함께 지녀야 한다. 즉, 각대학 고유의 독자성을 인식하면서 대학발전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의대학보를 포함한 대학신문 일반은 자체에 냉철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언론위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자의 기사를 다루는 역량이 객관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집방향과 논의과정이 일반학생에게 공개화와 활성화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지나친 외부필진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자의 목소리를 다듬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문제작에서의 참여폭의 확대이다. 신문의 사설을 비롯한 지면의 대다수가 학생기자, 가명기고자, 변력운동가 등에게 편향적으로 개방되어 지나친 논리의 경사화, 허술한 이론구조를 노정시키고 있다. 더구나 언어의 폭력에 의해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기사도 기자의 여과없이 기사화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과 대학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지만 지나친 예단과 선험적 가치에 매몰되는 오류는 반드시 회복하여 대학의 공기(公器)로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교당국의 이번 조치가 면죄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학은 사회정치적 질서로부터 터 성역화 될 수 없으며 대학이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어떠한 명목에서든지 교육을 봉쇄하거나 봉쇄를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문제해결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자발적 지지에 기초한 권위를 지닌 권력의 창출」이라는 고전적 정치학의 명제를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

80년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착수했던 민중탄압책동이 「언론통폐합」인바, 언론이 역사에서 갖는 중요도는 시대의 소명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지난 5월6일 문교부에서 발표한 대학신문탄압조치는 제2의 언론통폐합을 위한 사전 포석임에 분명하다.

이에 본보에서는 자유언론·정론직필의 기수로서 대학언론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독자들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편집자〉

문교부의 대학언론 관련조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만평은 한거레 신문의 박재동씨가 대학언론에 대한 문교부의 탄압을 규탄하여 「자유언론 실천대학신문 기자연합회」에 보낸 것이다.

학문과 민주학습을 위한 신문을 탄압하는 정권의 조치는 지적활동의 토대를 말살하려는 의도이다.

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왔음이 작금에 와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마고그」성 선전을 가능케 해준 근본적인 요인은 기존 언론의 영리만을 탐닉 하려는 기업근성 이었다. 역사적 사명을 망각한채 사주의 득만 꾀하려는 약은 근성은 독재자의 총칼을 이겨낼 만큼 강인한 의지가 없었고 결국에는 집권자의 마이크가 되어 행무새 처럼 그직화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번 탄압은 단순히 대학내의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을 차단한다는 의미 외에도 학생운동 세력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문교부 지시는 대학신문 탄압 정도가 아니라 대학사회전반에 대한 심각한 월권적 도전행위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원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수호 차원에서도 대학신문탄압 구도는 반드시 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탄압에도 의대학보는 전환기에 선 오늘의 한국을 분석하고 그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대로 흔들리지 말고 정론의 펜대를 더욱 높이 치켜 세워 주기를 바랄뿐이다. 아울러 이번 대학언론 말살책동은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의대인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만 깨부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갈망하며

서 항 석
〈동양·일본어2〉

「자유언론」과「정론직필」의 기치를 높이들고 언론 탄압에 의연히 맞서 싸워 온 대학언론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 예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위「총학장 회의」라는 자리를 빌어 문교 당국은 「대학신문, 교지, 학회지및 학생회나 학생들이 임의로 발행하는 신문류 등 대학 간행물의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사법 처리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총학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대학 간행물의 편집, 제작, 판매권 일체를 오는 20일까지 학생들에게 넘겨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편집 자율권, 예산 자율권을 학생들에게 이양하고 주간과 발행인 또한 학생이 맡도록 하겠다는 문교부의 발표는 학생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던 언론자유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치 빛 좋은 개살구격으로 엄청난 저의를 품고 있는 발상이다. 대학신문을 학생자치신문으로 만든다는 명분아래 총학생회 기관지, 학회지 등과 다름없는 반합법·비합법 매체로 전락시켜 대중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대학언론의 기본적인 위상을 소수 운동권의 회지로 만들겠다는 의도인것이다. 다시 말해, 교수·학생·직원 등 각 집단의 언로로써 그들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해는 모든 대학인의 「학교신문」을 「학생신문」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 간행물이 운동권의 선전선동 매체로 전락하였고, 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경우 발행인·주간·자금제공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므로 간행물의 편집·제작권을 학생들에 넘겨주는 것이, 어르신들은 위험물(?)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실로 편리하고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것이다.

대학신문탄압은 학내 사상 전파수단의 차단, 학생운동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의도

대학신문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동의대 사건을 계기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모든 민주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그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일련의 탄압책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특히, 대학신문은 합법적 영역 속에서 광범위하게 의식화, 조

폭력없는 세상

기자의 눈

지난 18일(목) 서울시청앞 광장에서는 서총련 주최 「해국학생 이철규군 고문살인 진상규명및 공안합수부 해체를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정집시법에 의거하여 사전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배치하여 대학생 차림의 행인들을 모두 연행하였다.

한편, 이틀피해 서울역과 남대문사이로 흩어져 있던 학생들은 「살인은폐, 조작음모 공안합수부 해체하라!」「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놈들 물아내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다 남대문에 이르러 연와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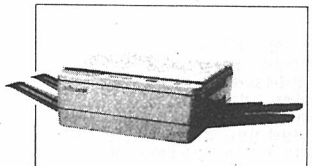
순식간에 몰려온 전합경찰들은 서로의 팔을 걸고 연와농성을 하는 학생들을 무참히 짓밟고 여학생들의 머리를 권채 난폭하게 연행해 갔다. 야유를 보내는 시민들에게조차 경찰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하는등 행패를 부려 현장의 한 시민은 「얼마전까지만해도 학생들의 화염병을 사용하는 폭력시위에 대해 반발감이 심했으나 최근 비폭력 평화시위에도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경찰을 볼때 학생들이 화염병 시위를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것같다」며 경찰의 폭력사용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번 동의대 참사를 계기로 전대협이 폭력시위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폭력자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위군중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집시법의 마련으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 이땅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주세력의 당연한 움직임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가로막아 왔던 현 정권이 얄팍한 집시법의 개정만으로는 반민주적·비도덕적인 작태를 환전히 버릴리 만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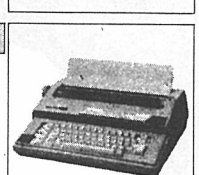
현시기에서 정부가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강경탄압과 희유슬쾌을 쓰고 있는 것을 상기할때 우리는 모든 사회악의 근원과 진정 이땅의 폭력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함과 더불어 단순히 비폭력적인 시위만을 고집하는 것이아니라 대두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순결한 의의를 상기하여 진정 폭력이 없는, 사회의 악이 없는 그리한 세상이 필 수 있도록 모든 양심적 행동가들이 일어나 열심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허행진기자〉

신제품
"꼭! 곁에두고 싶은 나의 타자기와 복사기"
하루 1500원으로 한영전자타자기와 전자복사기를 장만 하실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특별우대—3 24개월 할부판매


보통용지칼라 ₩880,000

SILVER REED EP7
1. 10만원대 가방식 타자기
2. 한글·영문 연속타이핑
3. 일반 전자타자기의 최대 장점 모두 갖비
4. 한글·영문 21가지의 서체 (384(W)×262(D)×114.5(H)m/m)
₩198,000

SILVER REED EZ10
1. OA용 13" 전자타자기
2. 한글·영문혼용 Hello기능
3. 120자 연속 수정장치 (353(W)×439(D)×127(H)m/m)
₩29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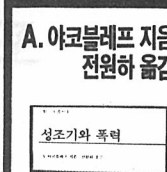


mita CC-10복사기
● 기능은 최첨단, 가격은 최저가
● 적, 청, 녹, 갈색, 검정 등5색의 폭넓은 칼라표현
● 어느 장소에나 어울리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실용성
● O.H.P용지, 라벨지, 전산용지 등 보통용지 복사
● 자동 노광장치

사무기기 전문백화점 라이카(주)
롯데부전시판매장 (정찰리전주에식당1층) TEL. 964-3211 (代) FAX. (02) 965-0780
롯데동전시판매장 (상동구청 앞) TEL. 452-3211 (代) FAX. (02) 452-3723
롯구리전시판매장 (구리시장 옆) TEL. (0346) 67-3211 (代) FAX. (0346) 67-3213
※전시장을 방문하시는 분에게는 사은품을 드립니다.

오스카 G. 브로케트 著
김 윤 철 譯
세계 연극학계의 석학 오스카G.브로케트 교수의 많은 공 力을 기울여 국내 최초의 번역 판.
연극개론
명쾌한 필치, 역사적 폭넓 및 해박한 지식으로 비평가적, 사회사적, 예술가적 입장을 종합적하여 우리의 심미적 연극관을 구체적가는 밝혀준다
제1부 : 기본문제와 이론적 기초
—예술형식으로서의 연극, 희곡의 구조 및 양식, 공연과 비평 등의 문제를 다룸다.
제2부 : 연극과 희곡의 발전 —기원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대표적인 희곡작가들, 형식들 및 실제 작업들이 논의된다.
제3부 : 현대 미국의 연극예술
—창작에서 공연까지 현대 미국 연극의 실제를 분석한다.
신국판/고급양장/미색모조 944면/가격 10,000원
翰信文化社
HAN SHIN MOON HWA SA
서울 244-1120·3905
팩스 734-5149·7315·1527

출간 즉시충격화제 베스트 셀러 진입!!
이 책을 民主제단에 바친다.
슈와 이아이오의 보복극
The Official Story
아카데미 最優秀 外国映画作品賞 外 8個部門作品賞受賞
오피셜 스토리
지금 아르헨티나는 독재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 옥중에서 태어난 아기의 매매사건.
● 성고문 물고문 전기고문의 실상.
● 낳은정 기른정 사이의 갈등과 고뇌.
● 과연 우리에게 독재란 무엇인가?
신국판/320쪽 값 3,500원
바로 서점에서 만나십시오
모 아 923-7907

성조기와 폭력
A. 야코블레프 지음
전원하 옮김


고르바초프시대의 가장 탁월한 정치가 국원 A. 야코블레프의 최신 저작!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에 감추어진 '미국의 본질'을 명쾌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384쪽/4,500원
밝은글

광주민중항쟁의 무장투쟁성격 고찰

정 민 승
〈정치평론가〉

Ⅰ. 머리말

역사적 특정사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유지·획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면적 접근이란 사건의 각기 다른 측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불충실하거나 무기력할 수 밖에 없으며, 분절적 관점의 경우에는 제사건의 다양한 특징과 계기를 상호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면적이고 분절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시사를 던져주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러한 관점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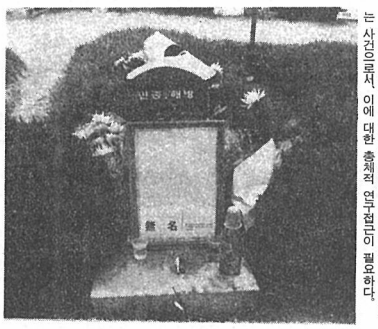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80년 5·18광주민중항쟁은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살아있는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은 그것이 초래했던 엄청난 희생과 폐해의 상흔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혁운동을 규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반미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켜 민족모순의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변혁운동의 성격을 각인시키거나 남한의 변화된 사회현실 속에서 변혁의 담당자, 곧 주체의 문제를 일정한 혁명투쟁 속에서 실천적으로 제기한 점, 그리고 대중적 봉기의 형태나 그것의 발전경로를 매우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주민중항쟁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이요 그것이 갖는 현재적 의의를 올게 파악하고 계승발전 시켜내기 위해서도 광주항쟁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를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분석·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관점과 문제의식하에서 광주항쟁 당시의 무장투쟁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광주항쟁에 대한 제반의 자료와 논의들 속에서도 유독 무장투쟁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야 좋을 정도로 빈약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앞으로 행해져야 할 과가 없거들 거대한다.

Ⅱ. 몸 말

1)무장투쟁으로서의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은 남한의 변혁운동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바, 그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무장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거



▲광주민중항쟁은 오늘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총체적 연구접근이 필요하다.

는 점이다.

이런은 점에서 이미 있어왔던 여타의 변혁투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남한의 변혁운동사 속에서 무장투쟁의 역사나 경험이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위 「좌익계필라」라고 불려졌던 해방 이후 전쟁시기까지의 무장투쟁(전쟁 이후까지도 일부는 잔존—소탕되거나 지하로 잠입)이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갑오농민전쟁이나 끈질긴 항일무장투쟁사 등 제반의 민중적 무장투쟁이 역사의 중요한 매시기를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쟁 이후 광주항쟁 이전까지는 이렇다할 무장투쟁이 전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은 지난 날 우리 역사를 빛내었던 무장투쟁사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계승·부활시킨 것이며 그러한 무장투쟁사의 흐름 속에서도 광주항쟁은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광주항쟁이 무장투쟁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단순한 일회적 사건의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구적 무장투쟁으로만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그러한 의문들의 근거는 대략 무장투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의 놀랄만한 신속성과 다양한 지역을 일시에 망라하는 규모에 있어서의 광범위성, 그리고 투쟁에 있어서의 일정한 조직적 통제성 때문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광주항쟁에서의 무장투쟁을 의도된 무장투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자구적 혹은 자원적 성격의 무장투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시 무장투쟁화의 경로나 무장투쟁 주체들의 문제로 볼 때 그러하다.

먼저, 무장투쟁화의 경로라는 것은 전두환 군부집단의 집권탈취를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된 광주에서의 대량살상과 그로 인한 자위수단의 절대적 요구를 말한다. 특히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돌과 각목 등 초보적 무기 대신 총을 들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였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계획된 의도로서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시민들이 총을 들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종의 「강요된 선택」이었던 것이다. 즉, 무차별 발포로 인한 집단학살은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총을 들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존의 절박성을 극도로 자극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필연적인 자위적 무장화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또한, 투쟁주체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비록 투쟁주체들이 피의 제전이라 할 수 있는 대량학살에 무시운 분노와 증오심으로 일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부구성과 수준에 있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투쟁의 주체로 나선 시민들이 그러한 의식적 지도 하에 조직적으로 무장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우리 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항쟁에서의 투쟁양상과 그 위력은 운동의 조직적 지도주체의 영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내재적인 자주적 요구와 뛰어난 창조적 역량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주항쟁에서의 무장투쟁은 본질상 자연발생적인 자구적 무장투쟁이었다고 규정한다.

3)정당성을 승인받은 무장투쟁

오늘 이 시점에서 광주민주항쟁의 의의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장투쟁부문만을·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 그러한 것이다. 즉, 광주민중항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장투쟁까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단조국의 역사속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무장투쟁! 이것이 광주항쟁의 또다른 의의 중의 하나이다. 무장투쟁은 소위 폭력투쟁의 최고형태로서 이것은 그동안 철저히 금기시되어 왔었다. 그런데, 광주민중항쟁은 이러한 금기를 깨뜨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당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중들은 이점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한 바 오래이다. 최근 폭력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은 실정에서 광주항쟁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서, 그것은 폭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투쟁의 정당성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임을 알수 있다.

4)무장투쟁의 전략전술적 문제

무장투쟁은 정치투쟁의 최고형태이며 전략전술적 의미에서는 주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한 결정적 시기의 총공세기에 동원되어야 할 투쟁방법이다. 남한의 경우 무장투쟁의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무장투쟁의 근거지나 배후지를 갖고 있는 여타의 나라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투쟁방법으로 채택될 수는 없을 것이다. 험소한 지리적 조건이나 고도로 발달한 현대적 군사강비 하에서 산악 혹은 농촌 등을 근거지로 한 무장투쟁이란 이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무장투쟁이란 그러한 투쟁형태를 채택하는 것이나 그것을 채택하는 시기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를 올게 판단하는 기초 위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장투쟁이 결정적 시기가 아니면 활용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전술적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장봉기 혹은 무장투쟁을 주된 투쟁형태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 결정적 시기 그것도 총공세기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의 무장투쟁이란 기본적으로 파익적인 오류로 될 것이다.

광주항쟁의 경우 그것은 주체의 전략전술에 입각한 투쟁형태로서의 무장투쟁이 아니라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봉기로서의 무장투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의 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무장봉기가 모든 조잡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극적 운명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보았듯이 무장투쟁은 그것을 가능케할 수 있는 요소로서 무기와 사람, 그리고 병법(군사적 전략전술)을 필요로 한다. 무기는 초보적 무장수단, 가령 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무장수단을 의미하며, 사람이란 무장투쟁을 지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군사간부와 병사들 말한다. 또한, 병법이란 실정에 맞게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군사력 방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광주항쟁의 경우가 하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살펴 보면 우선, 현지에서의 직접적 발취를 통한 무장화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무기입수가 불가능하고 무기소지가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독특한 무장화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람 특히 군사간부 등의 측면에서는 예비군의 간부나 예비군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다수의 경험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여 주었다.

셋째, 병법의 측면에서 일정한 도시지역에서는 무장항전의 방책 등이 구사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간단히 무장투쟁의 3대요소와 광주항쟁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간단한 확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혀야 될 줄 믿는다.

Ⅲ. 맺는 말

이상에서 광주항쟁의 무장투쟁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로 나누어 주제별로 살펴 보았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지속적인 역사과정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성격상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방법으로서 무장투쟁이기는 하였지만 제이자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하다.

필자는 광주항쟁에서의 무장투쟁을 다루는데 상당한 개인적 한계를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무장투쟁에 관한 차후의 본격적 연구를 위해 이 글이 의미있는 문제제기이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글을 쓴다. 많은 비판과 뒤이은 연구

▲사진은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장한 시민군의 모습.

"5·18광주민중항쟁은 이후 남한 사회변혁운동의 방향을 규정한 「살아있는 보고(寶庫)」이다"

광주민중항쟁은 단절된 무장투쟁사의 새로운 부활로 평가돼

남한변혁운동의 주체문제를 투쟁과정을통해 실천적으로 제기

광주항쟁은 생존 절박성아래 시민들의 선택이 강요된 자연발생적 무장투쟁

외대학보 광고문의 779-2355~6

(女)취업대비 유니타자학원 735-2323 9716
★육 필로만 사회의 되어 보람을 창조하자.
• 잔여·여(상)고·(초)대졸 및 예정자 환영
• 과정 : 속성반·고급반·국정반·타자선교반·각사반
• 교육 : 한·영·타 기초부터 상급 각지 경진대회 준비
• 의뢰 : 외국·인공기관·기업체·상업·각지 경진대회·도·전국 주소기업 및 대기업·행정공개

(男)陸軍 타자행정병 육군참모총장지정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니라.
• 타자행정병양성단 육군참모총장지정처
• 배치 : 본부중대·주특기부대·고급반·타자·조경·행정·간호
• 입영 : 1월 12일 주특기부대 28세 신청자 및 미필자 최우선 배치
• 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17세 이상 28세 신청자 및 미필자 최우선 배치

외국어교육의 극치
동숭 Institute of Language Art
이제 외국어 교육을 위해 단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던 때는 사라져야 합니다. 어학원들, 그 후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망 그리고 낭비뿐이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신하는 외국어 교육의 고급화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함과 의문점을 중심과제로 하는 정교한 교육 System, 서구인을 중심대상으로 구성된 미국 ESL과정의 모순을 낱낱틀에 분석하여 짜여진 새로운 각도의 교육내용과 교재, 미국 LA에서 수년간 외국어 교육을 경영했던 경험, 문화거리에서의 화려한 공간, 이 모든것이 새로운 언어교육의 고급화 시대를 창조할 것입니다.
강사 전원이 해외박사 및 석사로 짜여진 불어와 동구권 언어의 전문 교육기관 으로서, 그리고 영어·일어 어학 부까지를 포함하여 대학로에 그 화려한 날개를 펼쳤습니다.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B/D 3층
TEL. 763-0226, 742-3526
동숭 어학원

시대가 변하듯 TOEFL 도 변했습니다.
누가 이 책을?
20세기 최종판!!
시판단행!! 최신문제 대폭수록
20년 저자 이재욱, 심혈로 쓴 영어지침서의 고경이
이재욱 TOEFL 전면개정
세계적인 석학들의 영어학 이론 집대성
영어구문/문법·어휘·독해 종합연구서
—내용·특징—
◎Vocabulary
(30000 어상당, 여타 어휘 참고서 능가)
어원중심의 체계적인 정리, 다양한 예문수록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
(본된의 문제 약 30% 상당의 문법·해설 국내 최초 소개)
문법 및 구문의 문항별 2277제 체계적인 정리, 명쾌한 해설
◎Reading Comprehension
(170 개 수록, 중·장문 효율적인 구문파악, 독해방향 제시)
부문별 분류, 내용 심층분석, 다양한 출제 문형제시
내용으로 고른 손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영어 실력이 미흡한 학생!!
Quirk 문법기초 대학 저학년 지침서 -6개월 완성-
이재욱 기본 TOEFL
도서출판 소명 이재욱 TOEFL 798-5701~3 793-1018-2534

英字日刊紙 The Korea Herald 直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 6월 1일
英語·日語
中·佛·西·露·獨語
■코리아 헤럴드 社說 ■영문해석
■동시통역 대학원입시반 ■기초영어
■고득점 TOEFL 종합반 ■성문종합
■AFKN 스크린 합동 ■기본영어
■Vocabulary 22,000 ■실력기초
TOEFL 아카데미 L/C ■영작문 ■TIME DIGEST
■생활 영어 회화
• Practical English • Stream Line
• Spectrum English • English Alive
■美國人会話 ■일본어(박상원Ⅰ·Ⅱ)
■日本人会話 ■일본어 SCREEN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시청각 영어회화 과정
◆ 제55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 1989년 6월 8일
교육과정 : 1일 2시간·주5일(月~金)
수업·총6개 수준·각 수준 8주
강 사 진 :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 고학력 수준의 전원 Native Speakers.
전원및반편성 : 개인별 테스트에 의해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 반 12명으로 반편성
◆ 수업시간 ◆
7 - 9 AM / 5 - 7 PM
8 - 10AM / 6 - 8 PM
9 - 11AM / 7 - 9 PM
10 - 12AM / 8 - 10PM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전투경찰, 사상과 판단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양승균외 4명
〈전경해체 투쟁위원회〉

Ⅰ. 자위단원에로의 예속

또하나의 조국, 북한에서 발행된 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떠올린다. 자위단은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현지대리파쇼통치 기구로써 억압받는 민중의 민족해방투쟁과 반외세 구국투쟁을 탄압하고 일제의 식민지 착취·수탈을 온존·강화하는 물리력의 역할을 하였다.

일제의 자위단원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주인공 「갑룡이」의 반일의식과 자신의 존재위치에 대한 고민은 인간해방선언의 위대한 힘을 솟구치게 한다.

그에게 있어서 자위단원에로의 예속은 한 인간개체의 노예화를 의미하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절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의 주구인 자위단원으로부터 민족해방투쟁의 위대한 분출구인 항일유격대로의 전출은 그자체가 인간해방선언임과 함께 이땅 반제항전의 불멸의 불꽃인 항일구국투쟁의 진군임을 의미한다.

소설은 우리에게 노예적 굴종을 강요하는 식민지 파쇼체제내에서의 인간해방과 인간자주화투쟁, 그리고 식민지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취해야 할 애국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이땅에는 그러한 외세식민지 침탈과 파쇼통치체제를 온존·강화시키는 반민족적·반민중적 「자위단」이 과연 완전척결되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땅에는 아직도 일제시대의 자위단과 다름없이 「쾌임과 외무」에 당위성조차 느끼지 못한채 복종만을 강요당하는 또하나의 자위단이 존재하고 있다. 다름아닌 바로 「전투경찰」이다.

한반도의 아들들을 국방의 의무수행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차출하여 인간의 본원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밟으며 노예적 굴종을 강요하고 오직 현정권의 체제유지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는 것이 전투경찰유지의 근거이다.

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위진압

전투경찰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것은 1967년 9월 원주에서 내무부훈령 제 호로 창설되었다. 전투경찰의 창설배경은 「북한의 대남도발을 항시력으로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즉, 60년대 모험주의제인 북한의 대남혁명강화사업에 의하여 무장 게릴라의 남파활동이 잦아지자 대공취약망인 해안과 산악을 보강하고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족한 것이었다. 그래서 실전경험이 없고 직접적 전투능력을 겸비한 월남참전 병사들을 우대해가며 대원을 충당했다.

대간첩작전의 핵심은 기동력과 강한 군율, 그리고 적을 섬멸한다는 전투력이다. 그러나 초기모집된 대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였다.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고 결혼을 한 장년들이어서 기동력도 떨어졌고 규율은 해이해졌으며 실멸전적 전투력은 가족을 생각한 보신주의적(保身主義的) 입장때문에 저하되기만 하였다.

따라서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내무개혁과 법적정비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전경제도가 마련되는 근거, 곧 1970년 12월 31일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다.

전경대설치법이 제정되어지는 결정적인 근거는 68년 1월21일 북한의 특수부대에 의하여 진행된 「청와대 기습사건」이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총통제적 장기집권음모를 겨냥한 사전조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영구집단의 유신독재 시나리오에 의해 추진되는 각종 긴급조치및 포고령속에서 예견되는 민중의 가열찬 반독재 투쟁을 탄압할 물리력의 사전구축이라는 구도에 의한 산물인 것이다. 70년대 후반 동일방직 여공들에 대한 진압동원과 YH 여공 동지들의 신민당사 점거투쟁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동원은 바로 그를 예견한 필연적 표현이었다. 전투경찰의 대간첩작전이 대국민전투집단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불법적 조직운영과 변질은 광주항쟁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속에서 등장한 전투환 군사정권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족민주운동권에 대한 전일적 탄압기구로 최전선에 투입되게 된다.

전투경찰은 그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전투성(군사성)」과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상호결합된 준군사조직이다. 유신독재의 시기에 있어서 전투경찰의 성격은 경찰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는 경찰보다는 군사적 전투성이 결대적으로 강조되어 경찰의 군사화를 조장했다. 경찰의 군사화가 이끌어낸 성격중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개념은 「적」개념의 도입이다.

즉, 군사작전에서 필연적인 섬멸전의 적개념이 전투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확대 유입된 것이다. 오늘날 전투경찰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최루탄에 의한 화학적과 각개격파, 그리고 토끼몰이식 완전진압작전은 베트남 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초토화하던 군사전술과 상통하는 것이며 단지 그 형태와 정도가 유연하게 변형되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전경들은 항시적으로 정부중요기관에 「뻗치 경계·경비」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애국전경의 잇단 양심선언에서 표현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위진압」은 바로 그와같은 군사적 전투성을 정확히 상정·압축하는 말이다.

더구나 전경의 「대간첩작전」에서 「내륙지작전」으로의 임무변경은 대치전선을 내부화한다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곧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초강도의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강경대응의 기초는 적개념을 심화시키는 극우적이데올로기교육과 구타·기합등에 의한 수직계급적 명령준수와 강압적 위계질서, 그리고 강도높은 전압훈련이다. 사상과 양심, 생각과 판단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가혹한 살인적인 구타·기합에 시달림으로써 독재정권의 사병화와 노예적 굴종을 강요받는 것이다.

노동자·학생들이 기습가두시위를 대비하여 하루종일 좁은 버스 안에서 앉아 대기해야 하고, 출분한 휴식없이 정부중요기관에 「뻗치기」경계·경비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치질, 허리디스크, 관절염, 무좀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견디기 힘든 것은 국민들의 냉소와 질시,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다.

87년 6월항쟁 때 어느 전경이 전라남도 국민운동본부로 띄운 편지내용에서 「우리는 화염병·돌 등은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라고 밝힌 대목은 모든 전경이 느끼는 공통분모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전경들이 군사독재정권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도시락 부대」로서 찬 밥 신세를 지고 있으며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할 것 없이 연중무휴의 진압작전에 동원되고 있다. 위장자들이 명절날이나 연말연시에 으레히 내리는 하사품이나 돈 몇푼 올려주는 것으로 전경의 불만과 고충을 덮어 줄 수가 없다.

전경이 소·돼지가 아닌 다음에야 근본해결 방도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전투경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시위진압동원에서 해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민중의 아들로 복무하는 것이다.

Ⅳ. 노예적 굴종에서 벗어나

여기서 우리는 전경형제 역시 식민지를 살아가는 아들로서 반양심과 반인간화에 시달리며 억압받는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투경찰의 성격은 확실히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있다. 신식민지 파시즘체제의 전일적 억압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민중운동 탄압의 첨병체로 기능하는 성격과 전경 역시 억압받는 우리의 형제라는 이율배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다른 한쪽을 배태시키거나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적인 성격은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며 억압받는 전경형제에 대한 해방투쟁을 발양시켜주고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사업이 민중운동탄압의 첨병체적 성격을 동시에 해결하는 중심고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에 있었던 동의대 참사도 외세와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억압받는 전경형제들의 본질이 현상적으로 외형화된 것이며, 노태우 정권의 무분별한 강경진압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희생물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반양심과 반인간화의 노예적 굴종을 깨고 참된 자주적 인간으로 해방된 애국전경에게 사법적 처리방침이나 수배조치를 내리는 것은 또 하나의 노예화 음모수작임을 규명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난 5월 8일에 양심선언을 한 사복전경 6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사법적 처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땅에 있어서 자위단원에로의 예속은 한 인간개체의 노예화를 의미하며 이땅 반제항전의 불멸의 불꽃인 항일구국투쟁의 진군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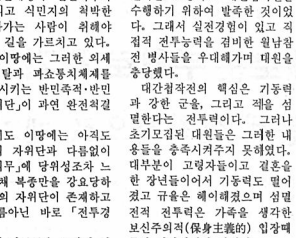
정권의 장기집권 일환, 대국민 전투집단

시위진압동원에서 해방, 민생치안에 복무해야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존재의 가치가 논의되고 있는 전투경찰의 문제는 식민지 독재권력이 만들어낸 또하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들을 던지던 학우가 어느날 전경이 되어 최루탄을 쏘아야 하는 현실, 전경과 맞붙어 한참 싸우다 모자를 벗겨보니 자기 아버지더라는 한신대 한 학우의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남의 일일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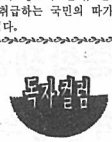
바로 내가 전경이 될 수 있고 타의에 의해 꼭두각시가 되어 학우의 눈을 멀게하고 또는 가져없는 죽음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경해체투쟁위원회 양승균, 노재하 외 3명이 공동 기고해온 글을 게재하며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편집자〉



외대만평

네 차례다. 대학신문!



독자칼럼

게임 오우버 (Game Over)

김 기 석
〈동양·아람어 4〉

「공부가 잘 안되는데…」「지겨운데 지능개발이나 하러 가자」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다.

학교주변에 들어선 「컴퓨터지능개발실」이 늘 북적거리고 한 사람이 오락기계 앞에 앉아 집어넣기 시작하는 50원짜리 동전은 어느덧 천원이 다 되도록 일어설 줄을 모른다. 더군다나 가관인것은 오락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다. 눈에서 빛이 반짝거리고 손가락은 1초에도 수십번씩 움직인다. 한쪽 다리를 덜덜떠는가 하면 「게임 오우버(Game over)」표시가 나왔을 때 그 실망하는 모습은….

하여튼 오늘날의 오락실은 국민학생으로부터 대학생,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생활공간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덕분에 오락실 주인들이 「밀당갔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요즈음이다.

이렇듯 현행하는 오락실 문화(?)인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또한 지대하다.

굳이 내용성있는 오락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 각박한 삶속에서 스트레스 해소로 하는 것인데 무슨 내용성이냐고 반박할 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의 생활에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 버린 오락문화이므로 이에 대한 일정정도의 건전성을 요구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 생각된다.

오락실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오락의 내용이 거의 파괴본능을 충족시키는 형태의 것들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퍼레이션 울프」나 「람보」같은 것은 파괴의 정도를 극대화시킨 나머지 총을 맞은 자의 몸이 산산히 찢어지도록 되어 있어 보기만 해도 끔찍한 판인데 국민학생들도 스크린에 비친 적들을 쏘아대며 즐거워한다. 「불특질」과 같이 불특을 잴 때마다 반라의 여자가 미소짓는 오락도 있고 심지어 「빠꼉고」도 일반 오락실에 버젓이 등장해있는 실정이고 보면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장소라는 느낌이 들기엔 과분한 곳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오락의 프로그램들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그것의 내용이 그들의 생활문화와 맞게 프로그램된 것뿐 아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흘러가는 시간을 오락실에서만 메꿀수 있는 것은 아닐게다.

얼마전 외신에는 미국의 영화배우 브룩쉴즈가 파티장에서 남들이 춤을 즐기고 노는동안 한 남자와 고전책들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세우다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전 책들에 관한 토론이 브룩쉴즈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마당에 지성인이라고 학문탐구와 사상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가에서 성조기 펄럭이는 「사관생도」게임을 즐겨야만 하겠는가.

오락실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오락의 내용이 거의 파괴본능을 충족시키는 형태의 것들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퍼레이션 울프」나 「람보」같은 것은 파괴의 정도를 극대화시킨 나머지 총을 맞은 자의 몸이 산산히 찢어지도록 되어 있어 보기만 해도 끔찍한 판인데 국민학생들도 스크린에 비친 적들을 쏘아대며 즐거워한다. 「불특질」과 같이 불특을 잴 때마다 반라의 여자가 미소짓는 오락도 있고 심지어 「빠꼉고」도 일반 오락실에 버젓이 등장해있는 실정이고 보면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장소라는 느낌이 들기엔 과분한 곳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오락의 프로그램들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그것의 내용이 그들의 생활문화와 맞게 프로그램된 것뿐 아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흘러가는 시간을 오락실에서만 메꿀수 있는 것은 아닐게다.

얼마전 외신에는 미국의 영화배우 브룩쉴즈가 파티장에서 남들이 춤을 즐기고 노는동안 한 남자와 고전책들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세우다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전 책들에 관한 토론이 브룩쉴즈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마당에 지성인이라고 학문탐구와 사상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가에서 성조기 펄럭이는 「사관생도」게임을 즐겨야만 하겠는가.

대학언론은 시대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오늘, 굴절된 언론의 역사속에서
대학신문은 무엇을 지향하며
걸어왔는지?

지금, 가해지고 있는
대학신문 탄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어라! 불어!"

자유언론·정론직필
파수꾼의 펜대는
일만오천 여러분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굽힘을 모르고
곧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대학보

모현학사 실태를 살펴본다

어학실·세미나실등도 갖추고있어 긍정적

문학토론, 학회활동 등 자치적 문화형성해야

본교 용인캠퍼스 모현학사(기숙사)는 타대학에 비해 시설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으나, 복지시설 사용, 식당문제등이 개선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여학생을 수용,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겪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치문화형성을 위한 사생들의 움직임이 소원해, 문화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지난 85년 3월 개관하여 작년까지 남학생 2백70여명을 수용하던 모현학사는 건물을 신축해 올해부터 여학생을 수용, 총사생수가 7백여명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모현학사 내부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특이할만한 것은 사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60석 규모의 열람실과 함께, 20석의 어학실습실이 남·녀학사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학실습실의 경우, 기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해온 낙후된 기계로 설치되어있어 고장이 잦은등, 많은 학생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람실의 경우도 방음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그 설치가 시급하다.

사생들의 체력관리를 위하여 탁구장과 체련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체련실의 경우, 다양한 체력기구의 부족과 장소의 협소로 이또한 사용하는 사생들이 환경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세미나실에서는 사생회(모현학사 사생들 자치조직) 주최의 영화상영이 토·일요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외에는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있어 사생들간의 활발한 교류속에 여러가지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식당은 사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생들의 식사는 식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사생들은 반드시 식권 40매를 구입해야 하며, 일단 구입한 식권은 반환이 안돼, 피해를 보는 사생들이 많다. 식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매가 가능함을 고려,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권매수를 조절해야한다. 아울러 높은 가격에 비해 음식질이 낮아 사생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상 지역적 한계로 직영화가 힘든 용인캠퍼스 상황에서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생들을 위하여 식당 입주가 최대한의 서어비스 정신으로 가격에 맞는 높은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 할수있겠다.

한편, 모현학사의 자치조직인 사생회는 공식적인 학생자치조직이 아님으로 인해, 학교측에 대해서 사생들을 대표하는 사생회로서의 실질적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대해 사생회장 조일남군(인문·사학4)은 『사생회가 7백여명의 이익등을 대변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로 인정되지 않고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행정체계의 간소화, 문제해결의 신속성, 광범위한 사업을 위해서도 사생회는 '자치기구'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생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남사생들에게는 거의 규제가 없지만, 여사생들에게는 규제가 심해 여사생들의 불만토로가 심하다. 오후 10시 '점호'제도로 10시 이후 여사생들의 모현학사 출입은 통제되고 있으며, 더욱이 외박은 한달에 4번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박을 하기위한 과정 또한 '외박증'을 받아서 지도교수나 보호자의 서명이 담긴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일해 여사생들은 『지나친 사생활침해』라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모현학사의 총괄·지도는 학사장과 여사생사감 각1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총괄교수의 상주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사생들의 갑작스런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항상적으로 사생들의 문제를 지도·해결해줄수 있는 상주지도 교수제가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모현학사는 타대학 기숙사에 비해 각기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생들의 복지시설 개선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는 복지시설 문제는, 사생회와 지도교수 그리고 사생들의 참여속에서 과학적·체계적인 연구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생활이니만큼, 사생모두를 위한 생활규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민주적인 원칙아래 정해져야 할것이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해진 생활규칙은 반드시 시행해나가는 각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규모가 확대된 모현학사는 자치적인 문화형성을 중요하게 제기받을수밖에없으며 바람직한 문화형성을 위해 학회활동, 문학토론회, 음악감상회등의 문화공간 개발을 위한 사생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선행되어져야 할것이다.

이제 모현학사는 7백여 사생들의 주체적인 그리고 사생회의 조직적·헌신적인노력이 가해질때 본교내에서의 기숙사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수 있을것이다.

〈박종건 기자〉

용인총학, 춘계농촌활동 전개

평택등에서 2박 3일간 1백여명 참여

용인 캠퍼스 학생 1백여명은 지난 5월19일(금)오후4시 학생회관앞 5·18광장에서 『춘계 농촌활동(이하 춘활)출정식』을 갖고 평택군 일원에서 2박3일동안의 농촌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출정식에서 농활위원장 김유산 부총학생회장(서문·독어3)은 『이번 춘활을 평택농민들과 왕산학우들이 하나될 수 있는 연대의 장으로 만들자』고 말한뒤 성실한 생활을 할것, 일정에 따라 행동할것 등을 당부했다.

출정식후 2대의 학교버스에 분승한 학생들은 5시 학교를 출발, 6시30분경 평택군 안중읍에 도착하여 용성 1·2리, 어소리등 5개 마을에 분산, 배치되었다.

다음날 학생들은 각마을에서 모내기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밤에는 청년반, 아동반 개설등 분반활동도 진행했다.

21일 오전작업을 마친 학생들은 평가회를 간단히 갖고 5시 학교버스를 이용해 귀가했다.

한편, 총학생회 사회부 농민분과장 김영천군(서문·플란드어3)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춘활에 대해 『춘활은 여름농활을 위한 사전답사, 지속적인 농민과의 만남, 단체생활을 통한 학우들의 결집력 강화등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극예술연구회 「연결」 오늘 워크샵 공연

용인 캠퍼스 극예술연구회 「연결」은 오늘(23일) 오후3시 교양학관 201호에서 학내 연극문화 활성화와 신입회원 연기력 증진을 위해 「제3회 워크샵(Work-Shop)」 「버저니아 그레이의 초상」을 공연한다.

박미경(서문·불어2)연출, 진유신(서문·플란드어2)기획으로 공연되는 이번 작품은 구엔들린 퍼어든 작으로 진실은 아름답거나 추한것이 아닌 평범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어, 윤대성작 「출발」도 공연될 예정이다.

서울 복지위원회 주최 방학중 하계특강 개설

서울캠퍼스 복지위원회는 오는 6월26일(월)부터 8월18일(금)까지 주5일 8주간 서울·용인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학관 강의실에서 하계특강을 실시한다.

개설강좌는 영어·일어·컴퓨터·타자 4개부문으로 특히, 영어강좌는 타임-영어순회, 종합영어-영어순회, 버캐뷰러리, 3개반으로 나뉘어 개설되며 강좌당 수강료는 8천원이다.

제1회 영어웅변대회 용인영어회화반개최

용인캠퍼스영어회화반(VEC)주최 「제1회 영어 웅변대회」가 오는 5월25일(목)오후6시 교양학관 201호에서 12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열릴예정이다.

영어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이 대회는 「왕산과 나」「대학인의 정치 참여」등 5개 주제중 택1하여 5분내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카툴릭 학생회창립제」 27일 소강당에서 열려

서울캠퍼스 동아리 카톨릭학생회는 오는 5월27일(토) 오후4시 대학원소강당에서 창립15주년기념 「카톨릭학생회창립제」를 개최한다.

회원상호간의 연대의식고취와 친목도모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동부지구 9개대학소속 천주교동아리가 참가하며, 프로그램으로 신입생들의 춘극(마당놀이), 개사곡부르기, 평양축전무용 및 노래공연등이 진행된다.

천주교 사회운동단체로서 노동·생활야학운영 및 정기연극공연을 주최해온 카톨릭학생회는 또한 오는 7월21일(금)부터 31일(월)까지 11일간 안동에서 농촌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 공간재활용은 시급한 문제

학군단건물, 교수연구·강의실로 재활용돼야

서울캠퍼스총학생회는 절대부족한 캠퍼스시설공간의 문제점을 극소화하기위해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건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88년12월 학생군사교육(교련)이 철폐된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학군단시설을 살펴보면 우선, 위탁장교실, 단장, 교수부장, 명예위원등 학군사관후보생(이하 R·O·T·C)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실이 군사교육철폐이후 7개로 늘어나고 이중 훈육관실은 2개로 늘어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탁장교와 훈육관실에서는 군사교육과 관련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 학생군사교육이 실시되던 3·4층에 위치한 4개의 강의실에서는 현재 화요일 R·O·T·C교육과 월·수·목·금 일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R·O·T·C교육이 이루어지는 화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주간 사용 가능한 강의시간이 12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5시간밖에 쓰여 있지 않아 강의실부족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 학생군사교육이 있을시 각학년담당교수가 근무하던 사무실중 일부분이 자료실로 변모, 지하층에 있는 군사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넣어두는 2개의 R·O·T·C교보재실과 함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로 불필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오후5시에는 건물이 폐쇄되어서 야간에는 어느 누구도 건물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외에도 5층의 탁구장, 휴게실도 서울캠퍼스의 좁은 공간내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학군단의 건물사용은, 현재 서울캠퍼스에서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교수연구실, 동아리실, 학회실, 강의실등과 대조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상황에서 총학생회의 학군단 건물재활용 제안에 대해 박성익학군단장은 『본교 공간부족문제는 공감하는 바이나 중요한 군수물자가 있는 학군단건물을 학시 공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학군단건물 재활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건물의 전체활문제로 더이상의 건물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서울캠퍼스에서 학군단 건물의 재활용도는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군단건물의 불필요한 공간을 고려, 4·5층 두개의 층은 학군단이 사용하며 지하1층과 지상1·2·3층에 동아리실과 학회실을 배치할수있으나 이경우 활발한 학생들의 활동장이니만큼 소음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반면, 교수연구실이나 강의실이 배정되었을 경우, 별다른 커다란 문제의 소지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학군단건물은 공간이 열악한 현상황에서 의대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임이 분명함때, 학군단건물재활용은 교수·학생·학군단등 상호의견 제시·개진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성원기자〉

「신규동아리등록」「대동제」안건으로 동연 대표자회의 오늘 개최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오늘(23일) 대학원 104호에서 신규동아리 등록심의·의결 및 대동제행사경과에 관한 안건으로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동연산하 60개동아리대표자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는 신규동아리 심의·등록부문에서, 동연에 가입돼 있지만 학생회에서 인가하지 않은 실내악반, 한울림(학술동아리), 기독교사상연구반에 대한 인가요구 및 활동지원비보장등이 의결될 예정이며, 대동제에 관한 예산과 행사내역 점검이 다루어 진다.

신규동아리인가와 관련, 이홍열(동양·일어4)동연장은 『현재 타대학교는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규동아리의 등록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본교는 경비절감의 이유로 신규등록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88학년도하반기 부터 89학년도 상반기까지의 전체동아리활동평가 및 정개·제명』이 다루어지며, 기타안건으로 『5·6월투쟁을 맞이하는 동아리인의 올바른 자세』가 결의될 계획이다.

「사고뭉치」

○…「작전개시」 「발포」로 숱한 민초들을 희생시킨 노××, 이제는 「계획」만으로도 민초잡기(?)에 손색이 없다고.

투기억제노린 모지역 「새도시 개발계획」이 그것으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땅값이 땅 깊은줄 모르고 한없이 떨어져, 끝내는 없는 민초 빚더미에 올려얹힌 농약으로 비관자살까지 하게 했다는 비보.

움직이기만 하면 심중심구 사고치는 노××, 뇌(腦), 수(手), 족(足) 거동에 당장 제동을 걸어야 할터.

○…요즘들어 왕산골 민주흙산들의 소리가 참변(?)을 당하고 있어 시국과 관련, 그 진상규명이 어느때보다도 시급해.

참변당한 피살체는 다름아닌 「5공 부활저지」 「축전참가」의 내용을 담은 흙산들의 플래카드로, 「부검」해본 결과 불쌍 그을린 혼적과 날카로운 플건사용 혼적이 발견돼 자연사(事)아닌 의도사(事)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왕산애국흙산!

축전완결의 사인(事因)규명으로 우익쉬결해서 사인(死因)규명에 피사리는 노××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터.

○…한반도 민초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코쟁이들. 또한번 민초들을 아연실색케 해.

사연인즉, 소련이 극동군 20만 감군계획을 발표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자 「세계평화」를 위해서 방어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주중인 주한미군은 철수시킬 수 없다며 공식방문을 거절했다는 것.

40여년간 남의 땅에서 온갖 불미스런 것을 다 벌였던 코쟁이들, 불미(不美)운동철퇴로 하늘높은 줄 모르는 코부러지기 전에 자진철수 서둘러야 할 사(事).

○…이문벌 학생회관 계단에 개점된 중고의자 상점이 한달이 넘도록 대목을 못보고 있어.

내용인즉, 애국흙산들이 잠조들의 학내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설치, 날아들겠다던 잠조소식은 전혀 없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흙산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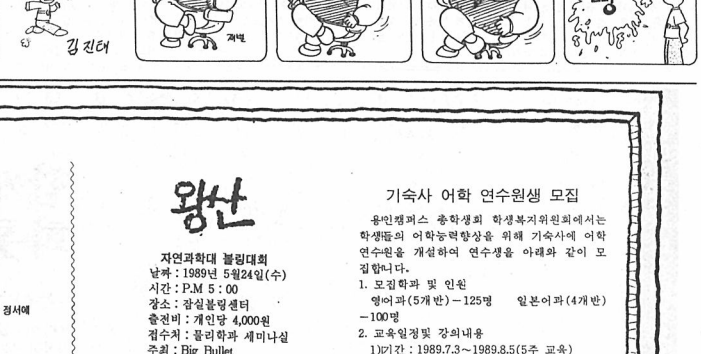
애국흙산제위! 흙산들 가슴마다엔 의자보다 더욱 강한 바리케이드가 쳐 있는 바, 상점폐업에 망설일 필요는 없을듯.

○…고도의 여론조작명수 ㅈ일보사 기자들이 「ㅈ일보 거듭나기운동」에 생존권도 불사하고 있는데.

정작 ㅈ일보사장은 기자대 다수가 주장하는 「75년 해직기자원상회복」에 「기자들 가족생존권과 곡필의 전통을 뒤흔드는 위험성발언」이라며 앞으로 있을 「중대결심」을 통해 「중대행동」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는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둔한 ㅈ일보사장나으리, 끝내는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크로니클자 그저 측은하기만.

곡필의 전통



비둘기 철판

이문

「대아고와 순천고의 만남(공차기)」
27일(토) 오후4시
1차집결 : 외대 운동장
2차집결 : 경희고 운동장
—외대대아고 동문회—

원어연극 상연기금마련을 위한
범외대 "일본어과 일일민속주점"
5월26일 미네르바 동산에서 13시부터 개장하오니 많은 학우들이 광주 밀주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어과 동화 구연대회
일시 : 6월 1일 4시
장소 : 6104 소강당
자격은 일본어과 학생으로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5분이내로 가능한 동화를 구사해야 합니다. 참가희망자는 5월30일까지 과대표에게 접수하길 바랍니다.

제물포고 야유회
5월 28일 11시 상징탑
회비 3,000원
제고인이 단합하여 극소수 극렬 나태세력 뿌리뽑자.

「죽창을 세워라」
일시 : 5월31일 오후8시
장소 : 해방광장
—민속놀이반—

「선인89, 민중의 나라로」
새물결 노래이야기
일시 : 6월1. 2일, 오후2시
장소 : 대강당
—새물결—

잠실고
일시 : 5월26일(금) 5시
장소 : 대학원 1층로비
회비 : 4000원
모두 한번 모여 봅시다.

제 10회 FBS 외대가요제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는 오늘의 대학 문화를 쇄신하고 순수 정서에 호소하는 참 노래를 찾습니다.

○참가곡 자격 : 1)시대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민중가요
2)전통적 가락과 정서를 노래한 전통 가요
3)건전하고 깨끗한 대학인만의 사랑과 우정, 문화의 고뇌를 노래한 순수가요

○참가 자격 : 서울과 경인 지구의 모든 대학인
(독창이나 중창 제한은 없음)

○예 선 : 5월 30일(화) 오후6시 대학원 소강당
○본 선 : 6월 5일(월) 오후6시30분 대운동장
○시상 내역 : · 대상—20만원 · 금상—10만원
· 은상—8만원 · 장려상—5만원
· 가사상—5만원

기타 기요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방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시청각 교육원 3층, Tel : 965—7001~16 교, 2154)

알찬방송 빠른보도 외대교육 방송국입니다 FBS

제4차 광주 인성(仁星)고 동문회를 5월 24일(수)오후 5시30분에 깔롬에서 개최하고자 하니 어진벌들은 회비 4,000원을 지참하고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왕산

자연과학대 불림대회
날짜 : 1989년 5월24일(수)
시간 : P.M 5 : 00
장소 : 잠실불림센터
출전비 : 개인당 4,000원
접수처 : 물리학과 세미나실
주최 : Big Bullet
후원 : 자연대 학생회

「인문인의 밤」

대동제 기간을 맞아 24일(수) 오후6시 소운동장에서 인문대 교수, 교직원님들을 모시고 대동놀이의 장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모든인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문대 학생회—

김기형 학우를 살립시다.
아랍어과 84학번
김기형학우가 뇌종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외대인의 정성으로 하루 빨리 완치 시킵시다. 추신 : 뜻이 있는 분은 아랍어과 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 2236)

기숙사 어학 연수원생 모집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기숙사에 어학연수원을 개설하여 연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인원
영어과(5개반)—125명 일본어과(4개반)—100명
2. 교육일정및 강의내용
1)기간 : 1989.7.3~1989.8.5(5주 교육)
2)교육시수 : 1일 5시간
3)주당일수 : 5일
4)강의내용
영어 : TOFEL, 작문, 회화
일어 : 문법, 작문, 회화
3. 지원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 남·여
4. 제출서류 : 소정원서(학생복지위원회양식)
5. 원서교부 : 1989. 5. 23~6. 3
학생복지위원회(어문학관 1층)
7. 최종시간표 및 분반발표 : 1989. 6. 9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 위원회에 문의 (어문학과 201호. 전화 : 2153)

—용인 학생복지 위원회—

우리역사의 존엄성은 어디에

◇TV사극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문화시론

최 상 식
〈KBS에능국 프로듀서〉

Ⅰ. 사극의 성격과 역할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바로 TV이며 그 중 사극의 역할은 오락적인 기능으로써 뿐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화면 속에 생동감있게 펼쳐지는 역사적 순간들을 통하여 시청자들은 안방에 앉아서도 마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현장감과 박진감을 맛보게 된다. 더불어 교과서나 역사책을 통하여 대하던 박제된 역사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와 만날수가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소재를 가져와 극화할 경우 역사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픽션을 가미해 가는 쪽을 역사극 또는 사극이라 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라는 옷을 빌려 입을 뿐 철저하게 픽션 중심으로 엮어가는 쪽을 편의상 시대극이라 부르고 있다. 명칭이야 어쩌 되었건 오락이 목적인 시대극과 역사성을 추구하는 사극의 정신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극은 일찌기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적인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권장되기도 했다. 기사도정신을 강조한 영국의 사극, 미국 서부극의 개척정신, 일본사극의 무사도정신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일본은 드라마를 통한 일본 역사의 미화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명치유신 엘리트들의 드라마화로 일본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자존심을 고무했는가 하면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같은 인물을 거국적인 영웅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Ⅱ. 한국TV사극의 현재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TV사극이 그동안 해온 작업은 역사의 미화(美化)라기 보다는 비하(卑下)라는 표현이 더 걸맞을 정도로 역사를 오염시켰다는 자성이 앞선다. 무능한 황과 후궁들의 질투, 대신들의 권모술수,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얼룩진 TV사극을 보면서 시청자가 느꼈던 것은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모멸감과 자괴감이 아니었던가 반문해 보고 싶다.

우리는 자랑스런 역사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이 그러하고 수와 당의 대군을 의연히 물리친 고구려의 기상과 뭉고군에게 그토록 저항한 고려인들의 항몽정신에서도 민족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대솔기신론소」와 「금강경」의 주석서를 쓴 원효의 사상적 깊이, 향가에 서린 신라인의 정서, 고려자기의 예술적 향기. 뿐인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나라말이 중국과 다르다하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자를 지닌 몇안되는 민족중의 하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들추어내어 자괴비하를 일삼고 있는 듯한 한국 TV사극의 모순성은 심각하다. 한마디로 역사의식의 부족과 굴절된 사관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극을 집필하는 작가는 올바른 역사관과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드러난 역사적 사실 보다는 그 사실을 있게한 시대적 사상성을 통찰하고 상상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야 함은 물론, 작가가 살고있는 현대적 시점에서 바라보기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투사해야 한다. 사극은 현대적 해석과 미래지향적인 면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오늘날 TV사극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많은 작가들이 식민사관이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굴절된 사관은 왜곡된 역사를 낳는다. 식민사관의 완전한 청산이야말로 한국사극이 바로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왕조만을 껴안고 외사랑을 해온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넓고 큰 역사의 바다를 헤엄쳐 가야 할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고려시대·삼국시대·고조선시대를 재현시키고 우리 역사에서 실종된 발해사를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한반도에 국한된 작은 역사가 아니라 저 대륙에까지 웅대하게 펼쳐졌던 민족의 기상을 되살림으로써 사대사상·식민사관에 멍든 민족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극도 이젠 소재의 폭을 넓혀야 한다. 황조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민중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 이땅에 잡초처럼 뿌리내리고 베이고 밟히면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온 **일반대중의** 생활사를 희면하고 왕족사, 귀족사만 들추어온 현재의 사극에서 무슨 역사적 진실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은 흑백논리로만 역사를 재단하려는 극작가들의 태도이다. 가령 이순신을 영웅화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의 다른 인물들을 필요 이상으로 평가절하 시킨다든지 거꾸로 을사보호조약의 책임을 가 없는 박제된 신이되고 말지 않았는가?

사극에 있어서 극작가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TV사극은 특히 그러하다. 연극공연의 경우 선택된 관객을 수용, 역사적인 사실을 다소 변형시키더라도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방송매체를 통한 사극은 그렇지가 않다. 성장과정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역사적인 사실도 결국 허구속에서 재연된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화면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곧 역사 그대로이며 진실 자체라고 믿기 때문이다.

Ⅲ. 한국적 점서·영상·미학의 구현

요즘은 사극에서 조차 한국사람다운 풍류와 멋이 느껴지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체신머리 없는 왕, 경망스런 대신, 일본 사무라이 극에서 처럼 칼춤을 뜨고 드잡이질 치는 선비. 뿐인가? 양갓집 규수가 외간 남자의 눈을 쳐를 듯 응시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수줍어야 할 사춘기 총각 처녀는 힐리웃 스타들처럼 격정적으로 포옹을 하고있는게 TV사극의 현주소다.

이제 우리 사극도 쇄종·힐리웃풍의 영상을 극복하고 은근과 여유 속에서 멋이 배어 오르고 해학과 익살이 넘치던 한국인의 정서에 걸맞는 한국적인 영상과 한국적인 미학을 찾아야 한다. 이런 탐구 정신과 겸질을 깨는 아픔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없고서는 한국 TV사극의 장래는 약속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부정적 측면 강조통해 한국역사 비하·왜곡

작가들의 식민사관 극복·시대통찰력 요구돼

▲MBC-TV [한줄기]의 한장면 (사진: MBC가이드 4월호)

동포여 적을 용서하소서

◇작은 영화 「황무지」를 보고

문예산책

뜨거웠던 80년의 그 5월을 다시 맞으면서, 서적·무크지 발간, 연극, 영화, 강연(민주교실) 등을 통해 그날의 한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열려 우리들의 발걸음을 바쁘게 해주고 있다.

지난 9일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예술마당 금강」을 찾은 것도 광주문제를 다룬 소영화 「황무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계단을 내려서면서 입구에 게시된 벽보를 통해 당국의 원판압수로 인해 VTR 자막으로 영화를 상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한 흥분과 기대속에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었다.

자막이 밝아오면 황량한 황무지에 개미만한 크기의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비춰진다. 이어서 철조망에 「접근금지」경고판, 어린 여학생의 클로즈업된 사진, 그리고 성조기…….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김의기」는 무자비한 진압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탈영하여 군산 「실버타운」에 몸을 피한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얼룩지고 소외된 기지촌 사람들의 삶과 접하게되고 스스로와 시대에 대한 문제에 당면한다. 흔혈아 DJ 베트로, 양공주 지미·쥬리, 병어리 문코, 선술집 여주인 강여인등 「실버타운」의 생활은 김의기의 마음속에 광주에서의 「살인」과 더불어 거센 고민을 몰고온다. 그 사이 쥬리가 미군병사 라이건(Lie + Gun, 레이건 지칭)에게 폭행당하고 병어리 문코는 미군의 칼던지기 게임에서 오른쪽 눈을 잃는다. 이에 격분한 DJ 베트로는 라이건과 싸움을 벌여 그의 칼에 숨지게 된다. 베트로의 장례식. 계속되는 고민속에 결론을 얻어낸 의기는 신부에게 고해를 하고, 망월동 무명열사 묘앞에서 양심선언을 한뒤 기름 붓은 자신의 군복에 불을 붙여 생을 마감한다.

90분간 계속된 16mm영상에서 얻마전 교내에서 상영된 「오/꿈~」과는 다른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오/꿈~」에선 종수라는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김의기」라는 진압 공수부대원을 등장시켜 가해자 또한 피해자였음을 지적했다. 둘째, 「황무지」는 좀더 세련되고 정제된 화면을 제공하여 구성과 제작기법, 연기에서 돋보이고 있다. 세째로 스토리 전개 중간에 황무지화면을 삽입하여 이땅, 특히 기지촌의 사회상은 곧 황무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하지각적 영상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 영화계의 검열조치완화에 편승한 상업성 짙은 포르노성 영화가 지배적인 작금의 영화계에, 이 16mm 영화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영화예술 탄압」이라는 커다란 벽과 자금난, 상영공간·배급통로의 부족은 이런 작은 영화들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꿈의 나라」의 바람에 이어 「황무지」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영화 「황무지」는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고 아직도 가시지않은 상처와 미결의 숙제들에 대한 물음표를 찍게 해준 좋은 작품이었다.

이 회 복
〈점과·신방3〉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의 고뇌그려

비교적 세련되고 정제된 화면제공

우리말의 쓰임새 (165) 성인

〈미국에 영어를 알지 못하는 성인이 늘고 있다—어느 특파원의 말중에서〉

여기서 「성인」은 문맥으로 보아 「成人」을 뜻한다. 따라서 「성인」의 첫 음절「성」은 짧게 발음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특파원은 「성인」의 첫 음절 「성」을 길게 발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의미가 달라 「聖人」이 된다. 우리말의 음장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간소개

카프비평의 이해
—김재용 엮음

일제하 진보적 문학운동이었던 카프문학운동 내에서의 비평분야 주요 자료를 모아놓은 책이다.

창작방법문제, 대중화문제, 문학운동조직문제등 당시 이론정립을 위한 비판작업의 성과들을 카프의 중심문학논리속에서 정리하고 있다.

〈풀빛펴냄 값 7천원〉

월간 함께하는 농민
—김준기 발행

농민을 새사회, 새농촌건설의 주인으로 이끌어내고, 사회전반을 농민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천만농민의 주인사상을 세우는데 일조하기 위해 창간된 대중교양잡지이다.

특집으로 농민운동의 향후 전망, 농학연대의 과제등을 다루고 있으며 「북한농민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기획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월간농민사펴냄 값 2천5백원〉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
—박석률 지음

모든 합법·공개적 단체의 활동이 불가능했던 유신독재의 상황하에서 민족민주운동사에 한획을 그은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필자의 옥중시·서간문 모음집이다.

〈풀빛펴냄 값 4천원〉

연재소설〈다섯번째〉

야학일기

은 종 복〈동양·중국어4〉

2교시를 마치는 종이 울리자 태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수에게 가야했다. 학생들이 인사하는 것을 귓전으로 흘리며 야학을 나왔다. 머리는 뒤죽박죽이다. 동수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할지.

동수의 집에 가니 동수는 없고 그 자리에 빈 소주병만 나뒹굴고 있었다. 태균은 동수가 있는 봉제공장으로 갔다. 그곳은 교장이 경영하는 공장이다.

일월로 늘어선 형광빛 아래에서 여공들이 일하고 있었다.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교장은 사무실에 있었다.

「교장선생님, 요즘 동수학생 회사에 나오나요?」

교장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을 했다.

「아, 요전에 야학에 다닌다면서 소개시켜준 애 말이지?」

「네」

「한 이틀 안나오더라구! 일은 밀리는데…」

그리고 교장은 동수가 못마땅하다고 했다. 그런 성격으로는 어디 가서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다고 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교장은 순한 양같은 노동자를 원하는 것일까.

태균은 공장을 나오면서 여공들을 다시 보았다. 그들의 눈꼽이 형광등 가에 먼지가 되어 쌓여 있는 듯 했다. 태균은 그것이 자신의 폐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목을 조였다.

태균은 도망치듯이 나왔다. 그러나 밤은 여전히 칠흑의 도시.

동수는 야학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기운으로 달아올랐다. 태균은 그의 손목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조용하다. 도로 위를 차들이 굉음으로 질주해도 그곳까지 침범

하지는 못했다. 밤하늘은 포근했다. 그리고 간혹 보이는 별도.

태균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밤풍경을 감상했다. 십자가가 있다. 탑이 있다. 그러나 야학을 한다고 반겨주는 곳은 드물었다. 멀리 산중턱에서 조그마한 불빛들이 새어나왔다. 그곳에도 인생이 있겠지. 엄숙한 인생이. 콘크리트 빌딩에 가려 작게 보이지만.

동수는 나무로 서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누듯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 자유의지를 맘껏 펴고 있는 나무, 물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사색을 주는 산책길의 나무. 그러나 불안해 보였다. 전에 느꼈던 강인함 뒤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동수학생, 무슨 일 있어! 야학에도 안나오고 회사도 안가고…」

그런데 눈물. 동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는 나무가 아니다.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태균은 더이상 정적을 참을 수 없었다.

「동수학생! 무슨 일이야?」

한참동안 가만 있던 동수는 물먹은 눈을 들어 말을 했다.

「왜 대학생들은 우리들을 위해 시위를 하는 거지요? 왜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할 일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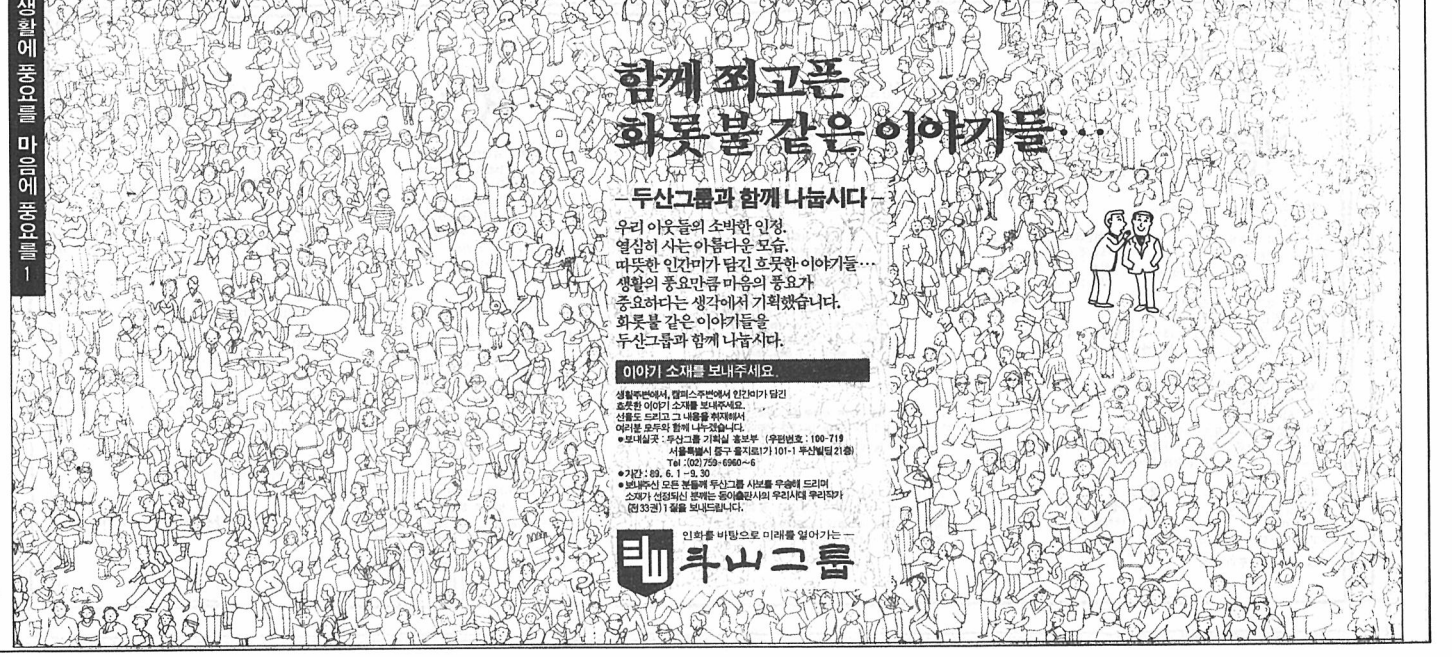
태균은 당황했다. 동수가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한편으로보면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대학생은 노동자하고 틀리지 않은가. 학교에서는 노학연대를 외치지만 실상 시위가 있을 때 도망치는 자는 누구인가.

동수는 옥상에서 뛰쳐내려 갔다. 태균은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

교무실에 내려오니 교감선생이 막 종례를 끝내고 들어왔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얼두시 이후에 소동하라던 교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교사들이 귀가하려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잠바차림의 사내가 무명 들어왔다. 형사.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1



함께 쬐고픈
화롯불 같은 이야기들…

—두산그룹과 함께 나눕시다—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인정.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모습.
따뜻한 인간미가 담긴 흐뭇한 이야기들…
생활의 풍요만큼 마음의 풍요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기획했습니다.
화롯불 같은 이야기들을
두산그룹과 함께 나눕시다.

이야기 소재를 보내주세요.

생활주변에서, 캠퍼스주변에서 인간미가 담긴
흐뭇한 이야기 소재를 보내주세요.
선물도 드리고 그 내용을 취재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내실곳 : 두산그룹 기획실 홍보부 (우편번호 : 100-71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두산빌딩21층)
Tel :(02)759-6960~6
●기간 : 89. 6. 1 ~ 9. 30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두산그룹 사보를 무상에 드리며
소재가 선정되신 분께는 동아출판사의 우리시대 우리작가
(전33권) 1질을 보내드립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일어가는 —
두山그룹